

만년에 우뚝한 한라의 영산 / 어린인 정기로 맞이한 인걸 / 세기는 부른다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진리의 탐구자 / 오, 우리는 문명의 선구자 //
한라산 하리에 바람이 일며 / 태평양 기슭에 물결이 칠 때 / 가슴이 뛰는다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문화의 창조자 / 오, 우리는 역사의 건설자 //
진실 불공 협동과 진취 / 우리의 갈 길은 여기에 있다 / 헤치고 나가자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민중의 지휘자 / 오, 우리는 조국의 계승자



진리
정의
창조

1954년 5월 27일 창간 (주간) news.jejunu.ac.kr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3년 2월 20일 수요일 제885호

제57회 학위수여식 오늘 거행

총 1835명 학위 받아... 박사 24명·석사 244명·학사 1567명



제57회 학위수여식이 20일 오전 10시부터 아라무즈홀과 미래창조관에서 거행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20일 오후 2시 법학전문대학원 강당에서 열린다. 또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1일 의학전문대학원 강당에서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학사 1567명, 석사 244명, 박사 24명 등 총 183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학위취득자 명단 4·5면) 총장상 및 표창, 학장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장상 (사진) △인문대학 김지선(국어국문학과) △사회과학대학 고연희(행정학과) △경상대학 베에스터(경영학과) △사범대학 고현진(지리교육과) △생명자원과학대학 강재혁(산업응용경제학과) △해양과학대학 강아유다(해양생명과학전공), 김지선(국어국문), 고연희(행정학과), 강재혁(산업응용), 고현진(지리교육), 강아유다(해양생명), 박은별(수학과)

△자연과학대학 박은별(수학과) △공과대학 현소영(컴퓨터공학과) △교육대학 한현지(초등윤리교육전공) △수의과대학 이민경(수의학과) △간호대학 박수빈(간호학과) △예술디자인대학 이승미(서양화전공) △법학전문대학원 이선영(법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오수현(의학과) △학예연구소 이강민(물리학과) 총 15명

▲공로 학생 총장표창상 △사회과학대학 정준호(법학부) △사범대학 정재우(국어교육과) △경상대학 김진영(경영학과) △사회과학대학 이상은(정치외교학과) △인문대학 홍성석(일어일본학과) 총 5명

▲학장상 △인문대학 오민지(국어국문학과), 박지영(영어영문학과), 안소향(독일학과), 김근희(일어일본학과), 신미주(중어중문학과), 문명

입학식 2월 26일 열린다... 다채로운 행사로 획기적 변신

빠른 학교 적응 위해 일정 단계
도시 증정·음악회 행사도 계획

3월의 첫 평일에 열리던 입학식이 앞당겨졌다. 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오는 2월 26일 체육관에서 열린다.

학교 당국은 표면적으로는 신입생

들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개강일 수업 보장과 신입생들의 빠른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복수합격한 학생들을 다른 대학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학식은 딱딱하고 형식적인 식순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행사가 가득하다. 신입생은 물론, 새 출발을 지

켜보는 대학 구성원 모두 대학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준다는 취지를 한껏 살리기 위해서다.

1부 행사는 허형진 총장의 입학허가 선언과 신입생 대표 선서 등으로 진행된다. 또 입학식 참석자에게는 총장이 추천하는 도서를 신입생 도서에 증정한다. 처음 실시되는 모듬 증정 행사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다.

2부 행사는 '새로운 도약, 희망찬 미래, 뜻 모아 제대로'를 주제로 교수들이 직접 연주하며, 음악학부 학생의 독주가 이어진다. 제주대 교수, 도내 대학의 외국인 교수, 음악학부 재학생의 독주와 제주대와 협약을 체결한 제주PMC에서 난타 공연 등도 펼쳐 예정이다.

정시 나·다군 합격자 1866명 발표... 예비후보자·의전원 합격자도

2012학년도 정시 나·다군 합격자 1866명 (나군 1040명, 다군 817명)이 확정, 발표됐다.

합격자 분석 결과 도와 학생비율이 17%로 지난해보다 1%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 49%(912명), 여자

51%(945명)로 여학생 비율이 2% 정도 높았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 4283명 (나군 1744명, 다군 2539명)도 발표됐다.

모집단위별 미등록 결원에 대해서

지 개별 전화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를 병행해 발표한다.

한편 올해 첫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도 정시모집 나군 13명, 다군 4명의 합격자를 발표

2013학년도 제1학기 일반교육과정 학습생 모집 안내

작업준비 프로그램					
강좌명	성명	강의요일/시간	평점	수강료	비고
라이프	김기현	토 10:00~13:00	20	170,000	
부동산경제개론(기초)	오두성	토 14:00~17:00	30	170,000	
부동산경제개론(심화)	오두성	월 19:00~22:00	30	170,000	
비즈니스영어 및 커뮤니케이션	문예수	수 18:30~21:30	20	170,000	
수맥	이석호	토 14:00~17:00	20	170,000	
저소득층 - 초보자를 위한 홈케어	이성진	금 18:30~21:30	24	170,000	
집에서 즐기는 한·중·일 요리상차	고광현	목 18:30~21:30	24	170,000	
책놀이지도사	김정민	토 10:00~13:00	20	170,000	
문수지리(택일학)	김대희	수 19:00~22:00	30	170,000	
한방피부미용	손은희	일 19:00~22:00	20	170,000	

자격인증 프로그램					
강좌명	성명	강의요일/시간	평점	수강료	비고
NIE지도자과정(기초)	김은미	월 10:00~13:00	20	200,000	
NIE지도자과정(심화)	김은미	수 10:00~13:00	20	200,000	
NLP 프랙티스 기본과정	김순재	수 19:00~22:00	20	200,000	
다문화통역사과정	배후주	토 13:00~16:00	30	360,000	
독서심리상담사(기초)	신혜교	토 10:00~13:00	20	200,000	
독서심리상담사(심화)	신혜교	토 13:00~16:00	20	200,000	
독서심리상담사(보수교육)	신혜교	월 10:00~13:00	15	200,000	
통화수업지도사(기초+심화)	김정미	수 18:30~21:30	20	360,000	
통화수업지도사 - 기본A	김명혜	화 10:00~13:00	20	200,000	
통화수업지도사 - 기본B	김명혜	화 19:00~22:00	20	200,000	
통화수업지도사 - 기본C	김명혜	토 13:00~16:00	20	200,000	

말신상담사(상담사)	이영진	토 09:00~17:30	30	480,000	20주과정
멘토십지도사(초급A)	이태연	월 14:00~17:00	24	330,000	
멘토십지도사(초급B)	이태연	목 14:00~17:00	24	330,000	
멘토십지도사(초급C)	이태연	토 14:00~17:00	24	330,000	
멘토십지도사(초급D)	이태연	일 14:00~17:00	24	330,000	
미술치료교육사(초급A)	한서정	목 09:00~12:00	15	200,000	
미술치료교육사(초급B)	한서정	토 09:00~12:00	15	200,000	
미술치료교육사(초급C)	한서정	수 09:00~12:00	15	200,000	
부동수업지도사(초급)	배후주	토 10:00~13:00	30	200,000	
불타지도사(기초)	이선경	월 19:00~22:00	20	200,000	
신비초전통예술(기초)	김정민	월 10:00~13:00	20	360,000	
신비초전통예술(심화)	김정민	목 18:10~21:10	35	360,000	
신비초전통예술(심화2)	김정민	월 18:10~21:10	35	360,000	
신비초전통예술(심화3)	김정민	월 19:00~22:00	30	200,000	
생활습관지도사(과정+회고)	문은숙	금 15:00~18:00	24	330,000	
스킨스쿠버(초급)	정민현	일 10:00~13:00	16	330,000	
스킨스쿠버(중급)	정민현	일 14:00~17:00	16	330,000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지도사(기초)	이정현	목 09:30~12:30	20	200,000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지도사(심화)	이정현	목 09:30~12:30	20	200,000	
승마자격증(초급)	김근수	토 14:00~17:00	20	330,000	

강좌명	성명	강의요일/시간	평점	수강료	비고
신비초전통예술(기초)A2	이선경	토 09:30~17:00	25	360,000	각주인
아름다운아트(기초)A1	이선경	월 10:00~13:00	20	200,000	
발명습득(기초)A1	김정민	토 12:00~15:00	24	330,000	
발명습득(심화)A1	김정민	일 15:00~18:00	24	330,000	
발명습득(심화2)A1	김정민	월 15:00~18:00	24	330,000	
발명습득(심화3)A1	김정민	월 12:00~15:00	24	330,000	
재활습득(심화4)A1	김정민	월 14:00~17:00	20	330,000	
차별금지(기초)A1	원종호	수 19:00~22:00	20	200,000	
차별금지(심화)A1	원종호	목 19:00~22:00	20	200,000	
커뮤니케이션(기초)A1	이태연	토 12:00~15:00	20	330,000	소출생
커뮤니케이션(심화)A1	이태연	토 14:00~17:00	20	330,000	
커뮤니케이션(심화2)A1	이태연	토 16:00~19:00	20	330,000	
푸드테크(기초)A1	박영희	수 10:00~13:00	15	200,000	
푸드테크(심화)A1	박영희	토 10:00~13:00	10	360,000	
푸드테크(심화2)A1	박영희	토 14:00~17: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3)A1	박영희	토 18:00~21:00	10	200,000	사정박강
푸드테크(심화4)A1	박영희	토 21:00~24: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5)A1	박영희	토 24:00~27: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6)A1	박영희	토 27:00~30: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7)A1	박영희	토 30:00~33: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8)A1	박영희	토 33:00~36: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9)A1	박영희	토 36:00~39: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0)A1	박영희	토 39:00~42: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1)A1	박영희	토 42:00~45: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2)A1	박영희	토 45:00~48: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3)A1	박영희	토 48:00~51: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4)A1	박영희	토 51:00~54: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5)A1	박영희	토 54:00~57: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6)A1	박영희	토 57:00~60: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7)A1	박영희	토 60:00~63: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8)A1	박영희	토 63:00~66: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9)A1	박영희	토 66:00~69: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20)A1	박영희	토 69:00~72: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21)A1	박영희	토 72:00~75: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22)A1	박영희	토 75:00~78: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23)A1	박영희	토 78:00~81: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24)A1	박영희	토 81:00~84: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25)A1	박영희	토 84:00~87: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26)A1	박영희	토 87:00~90: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27)A1	박영희	토 90:00~93: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28)A1	박영희	토 93:00~96: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29)A1	박영희	토 96:00~99: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30)A1	박영희	토 99:00~102: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31)A1	박영희	토 102:00~105: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32)A1	박영희	토 105:00~108: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33)A1	박영희	토 108:00~111: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34)A1	박영희	토 111:00~114: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35)A1	박영희	토 114:00~117: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36)A1	박영희	토 117:00~120: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37)A1	박영희	토 120:00~123: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38)A1	박영희	토 123:00~126: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39)A1	박영희	토 126:00~129: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40)A1	박영희	토 129:00~132: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41)A1	박영희	토 132:00~135: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42)A1	박영희	토 135:00~138: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43)A1	박영희	토 138:00~141: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44)A1	박영희	토 141:00~144: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45)A1	박영희	토 144:00~147: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46)A1	박영희	토 147:00~150: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47)A1	박영희	토 150:00~153: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48)A1	박영희	토 153:00~156: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49)A1	박영희	토 156:00~159: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50)A1	박영희	토 159:00~162: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51)A1	박영희	토 162:00~165: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52)A1	박영희	토 165:00~168: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53)A1	박영희	토 168:00~171: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54)A1	박영희	토 171:00~174: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55)A1	박영희	토 174:00~177: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56)A1	박영희	토 177:00~180: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57)A1	박영희	토 180:00~183: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58)A1	박영희	토 183:00~186: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59)A1	박영희	토 186:00~189: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60)A1	박영희	토 189:00~192: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61)A1	박영희	토 192:00~195: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62)A1	박영희	토 195:00~198: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63)A1	박영희	토 198:00~201: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64)A1	박영희	토 201:00~204: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65)A1	박영희	토 204:00~207: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66)A1	박영희	토 207:00~210: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67)A1	박영희	토 210:00~213: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68)A1	박영희	토 213:00~216: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69)A1	박영희	토 216:00~219: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70)A1	박영희	토 219:00~222: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71)A1	박영희	토 222:00~225: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72)A1	박영희	토 225:00~228: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73)A1	박영희	토 228:00~231: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74)A1	박영희	토 231:00~234: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75)A1	박영희	토 234:00~237: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76)A1	박영희	토 237:00~240: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77)A1	박영희	토 240:00~243: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78)A1	박영희	토 243:00~246: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79)A1	박영희	토 246:00~249: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80)A1	박영희	토 249:00~252: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81)A1	박영희	토 252:00~255: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82)A1	박영희	토 255:00~258: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83)A1	박영희	토 258:00~261: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84)A1	박영희	토 261:00~264: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85)A1	박영희	토 264:00~267: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86)A1	박영희	토 267:00~270: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87)A1	박영희	토 270:00~273: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88)A1	박영희	토 273:00~276: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89)A1	박영희	토 276:00~279: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90)A1	박영희	토 279:00~282: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91)A1	박영희	토 282:00~285: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92)A1	박영희	토 285:00~288: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93)A1	박영희	토 288:00~291: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94)A1	박영희	토 291:00~294: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95)A1	박영희	토 294:00~297: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96)A1	박영희	토 297:00~300: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97)A1	박영희	토 300:00~303: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98)A1	박영희	토 303:00~306: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99)A1	박영희	토 306:00~309: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00)A1	박영희	토 309:00~312: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01)A1	박영희	토 312:00~315: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02)A1	박영희	토 315:00~318: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03)A1	박영희	토 318:00~321: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04)A1	박영희	토 321:00~324: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05)A1	박영희	토 324:00~327: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06)A1	박영희	토 327:00~330: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07)A1	박영희	토 330:00~333: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08)A1	박영희	토 333:00~336: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09)A1	박영희	토 336:00~339: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10)A1	박영희	토 339:00~342: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11)A1	박영희	토 342:00~345: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12)A1	박영희	토 345:00~348: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13)A1	박영희	토 348:00~351: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14)A1	박영희	토 351:00~354: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15)A1	박영희	토 354:00~357: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16)A1	박영희	토 357:00~360: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17)A1	박영희	토 360:00~363: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18)A1	박영희	토 363:00~366: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19)A1	박영희	토 366:00~369: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20)A1	박영희	토 369:00~372: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21)A1	박영희	토 372:00~375: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22)A1	박영희	토 375:00~378: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23)A1	박영희	토 378:00~381: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24)A1	박영희	토 381:00~384: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25)A1	박영희	토 384:00~387: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26)A1	박영희	토 387:00~390: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27)A1	박영희	토 390:00~393: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28)A1	박영희	토 393:00~396: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29)A1	박영희	토 396:00~399: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30)A1	박영희	토 399:00~402: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31)A1	박영희	토 402:00~405: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32)A1	박영희	토 405:00~408: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33)A1	박영희	토 408:00~411: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34)A1	박영희	토 411:00~414: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35)A1	박영희	토 414:00~417: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36)A1	박영희	토 417:00~420: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37)A1	박영희	토 420:00~423: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38)A1	박영희	토 423:00~426: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39)A1	박영희	토 426:00~429: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40)A1	박영희	토 429:00~432: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41)A1	박영희	토 432:00~435: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42)A1	박영희	토 435:00~438: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43)A1	박영희	토 438:00~441: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44)A1	박영희	토 441:00~444: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45)A1	박영희	토 444:00~447: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46)A1	박영희	토 447:00~450: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47)A1	박영희	토 450:00~453: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48)A1	박영희	토 453:00~456: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49)A1	박영희	토 456:00~459: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50)A1	박영희	토 459:00~462: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51)A1	박영희	토 462:00~465: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52)A1	박영희	토 465:00~468: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53)A1	박영희	토 468:00~471: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54)A1	박영희	토 471:00~474: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55)A1	박영희	토 474:00~477: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56)A1	박영희	토 477:00~480: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57)A1	박영희	토 480:00~483: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58)A1	박영희	토 483:00~486: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59)A1	박영희	토 486:00~489: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60)A1	박영희	토 489:00~492: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61)A1	박영희	토 492:00~495: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62)A1	박영희	토 495:00~498: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63)A1	박영희	토 498:00~501: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64)A1	박영희	토 501:00~504: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65)A1	박영희	토 504:00~507: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66)A1	박영희	토 507:00~510: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67)A1	박영희	토 510:00~513:00	10	200,000	
푸드테크(심화168)A1	박영희	토 513:00~516:00			

사설

학위수여식을 맞이하며

학위(學位)란 국가 또는 대학에서, 어떤 부분의 학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일정한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 그 성취도를 인정하여 수여하는 학문적 지위(地位)를 말한다. 그러니 오는 학사와 석사,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전공 분야의 학술을 일정한 과정을 거쳐 전문적으로 연구하였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다. 어디 그뿐이라. 졸업생들이 이렇게 인정받게 되기까지 함께 해 온 가족들과 친지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날이 또한 오늘이다. 하지만 오늘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조선 효종(孝宗) 4년(1653) 7월 2일에 영중주부사(領中樞府事) 이경여(李敬輿, 1585~1657)는 ‘제변을 이겨내는 데 힘써야 할 21항의 상차문’을 올린 일이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렇다. “석사(碩士), 광유(宏儒)로 말하면 뒷날 장상(將相)이 될 그릇이니, 더욱 널리 찾아 두루 시험하여 과연 남들보다 나은 조맹이 있고 월등한 재능이 있다면 기량이 빼어난 것을 인정하여 보전하고 기르며 완전하게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석사와 광유는 학문적 성취는 뛰어나지만, 아직 벼슬을 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백강(白江) 이경여가 생각한 ‘인재를 기른다(養人才)’하는 것은 인재를 찾아내 쓰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작년 12월 정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2.9%로, 청년 실업률은 7.5%, 실업자 수는 30만4000명이라고 한다. 실제로 2012년도에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청년 56만6374명 가운데 59.5%인 29만6736명만이 취업에 성공했다하니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절반 이상이 백수’라는 기사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거나 청년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또는 고졸취업 중심의 교육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하지만, 취업을 미룬 40.5%에게는 현실성 부족한 구호로 들릴 것이다. 이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청년실업이 그런 구호로 해결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350년 전 이경여가 생각한 인재양성의 체계가 실현되기는커녕 술한 석사와 광유를 양산하기에 급급했던 우리 교육제도와 사회 인식이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면, 기왕에 그 학문의 깊이와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니 그런 자신을 적극 세일즈하는 방안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막대한 골목이 되면 돌아선다’ 하는 우리 속담은 포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오늘 학위를 받아 제주대학교 동문이 되는 모두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성공하기를 바란다.

의전원 등 캠퍼스 건물 신축·개축 ‘붐’

친환경농업과학연구소·말산업육성센터 신축

수의대 건물 위치 합의… 내달 공사 재개

체육관·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등 잇따라

대학본부가 캠퍼스 시설조성을 위해 새로운 건물 시공 계획을 세우면서 새로운 캠퍼스 지도가 그려지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현 제주대학교 병원 부지), 친환경농업과학연구소, 수의과대학 건물 등 신축은 물론이고 체육관과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멀티미디어디자인 전공 3D&CAD 모델제작실 등의 보수도 계획돼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신축 건물은 2월에 착공해 올해 7월에 완공될 계획이다. 이 공사에 64억 가량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설과는 의학전문대학원 건물이 올해 2학기부터 교직원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의학전문대학원·제

주대학교병원 기숙사 준공식을 가졌다. 제주대병원 입구 북쪽에 위치한 신축 기숙사는 사업비 45억원이 투입돼 지상 4층 2개동 건물에 연면적 3708㎡ 규모로 지어졌다. 이곳에는 숙소 81실, 도서관 1실, 근린생활시설 2실을 갖추고 있다.

수의과대학 건물 신축공사도 재개된다. 수의과대학 건물은 지난해 10월 26일 착공식이 열렸으나 건물 위치에 대한 합의사항 왜곡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공사가 중단돼 왔었다. 그러나 지난 1월 29일 인문대와 수의대 간에 건물 위치문제에 타협점을 찾으면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골조, 내부벽돌 및 방수공사, 창호공사 등이 계획됐다.



지난 1일 의학전문대학원과 제주대학교병원 기숙사를 위한 준공식이 열렸다.

이번 수의과대학 신축공사는 총 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에 총 5,578㎡(1690평)의 규모로 지어진다. 지하층에는 기계실, 실습실, 학생회사무실, 부검실, 해부학실 등의 공간이 마련된다.

그 외에도 친환경농업과학연구소도 새롭게 지어질 전망이다. 이 건물

은 오는 4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칠 계획이다. 또 체육관은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체육관의 무대를 확장하는 한편 외부 페인트칠을 통해 새단장을 할 전망이다. 또한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급식소 신축, 말산업육성전문인력양성센터 신축 등이 계획돼 있다.

김명지 기자

오명 감독 ‘지슬’로 영화상 휩쓸어

<미술학과 동문>

브졸영화제 ‘황금수레바퀴상’ 선댄스 영화제선 ‘심사위원대상’

제주대 동문인 오명(미술학과 90학번·본명 오경현) 감독의 ‘지슬’이 지난 12일 브졸국제아시아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수레바퀴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주어로 감자를 뜻하는 ‘지슬’을 제목으로 한 이 영화는 당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큰넓개 동굴로 피해있던 마을 주민 수백 명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다. 제주 4·3에는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닌 희망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평범한 일



상에 초점을 맞췄다. 오명감독은 제주 출신 배우들과 제주 방언으로 이번 영화를 제작했다.

오명 감독의 네 번째 장편인 흑백영화 ‘지슬’은 4·3사건 당시에 ‘해안선 5km 밖의 모든 사람을 폭도로 간주하고 무조건 사살하라’는 미군정의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이번 영화는 브졸영화제에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를 받았다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독립영화 축제인 미국 선댄스영화제에서 최고위원상인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4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등 각종 영화상을 휩쓸고 있다.

오명 감독은 “이 상은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제주 섬 사람들의 통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이니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영화를 찍는 동안 함께 해준 수많은 영혼들과 같이 나누고 싶고,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 영화제에 깊은 감사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제주대 새순원정대 봉사팀 경제교육 봉사활동 벌여

제주대 지역사회봉사단인 새순원정대 봉사팀(팀장 영어영문학과 4학년 김제성)은 지난 4일 외도동 소재 새순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들과 체험활동을 했다.

이들은 새순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들과 함께 한국은행 제주본부를 찾아 화폐만들기 체험, 화폐 전시실 관람 및 경제교육 전문가의 어린이 경

제교육에 대한 특강을 듣는 등의 행사를 가졌다.

한편 제주대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선정된 새순원정대 봉사팀은 김제성 학생을 비롯해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들 스스로가 팀 구성 및 봉사프로그램을 기획하여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외도동 새순지역아동센터 초등 3~6학

년 대상으로 매주 1회, 3시간 경제교육을 하고 있다.

아라해외봉사단 라오스서 봉사활동

아라해외봉사단(단장 양영철 교수)이 지난달 19일부터 8박9일간 라오스 학사이마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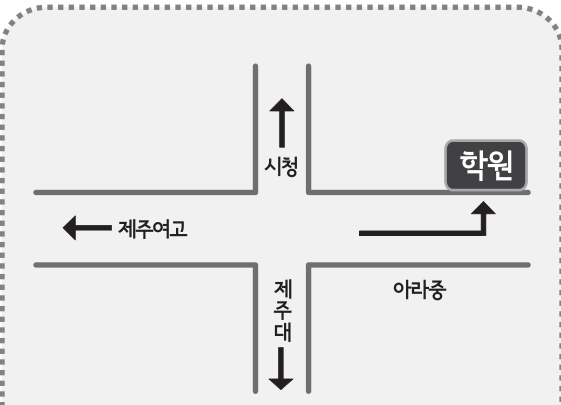
교수·학생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55명으로 구성된 아라 해외봉사단은 지난달 26일까지 현지에서 의료·기술·교육·노력 봉사과 지역주민과 문화교류 행사 활동을 벌였다. 자원봉사 지역은 수도 비엔티안 시내와 우리나라 정부의 새마을 운동 지원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학사이 마을이다.

봉사단은 체류기간 중 한국-라오스 문화교류의 밤 행사도 가졌다. 이번 해외봉사는 학생들에게 전 세계적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지역과 국가를 넘어 인류의 행복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제주대는 지난 2010년 8월 필리핀 카비테주와 2011년 7월 필리핀에서 이같은 자원봉사활동을 벌인 바 있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창진	편집인·주관 김동윤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편집국장 김명지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전화번호 064)754-2114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영어강좌 수강료 최대 50% 지원!!!

SPEAKING이 되면 **세계**가 보인다!

2013학년도 제1차 외국어 특별강좌

- ◆ 강좌기간 : 2013. 3. 6(수) ~ 2013. 4. 12(금) (매주 월·금, 총 6주 28시간)
- ◆ 접수기간 : [1차 접수] 2013. 2. 18(월) ~ 3. 4(월) 오후 5시 [실강연 강좌 추가 접수] 2013. 3. 5(화) 오전 9시 ~

- ◆ 강 좌 명 : 원어민 영어회화 기초 영어회화 시사영어(CNN 청취, TIME & NEWSWEEK 독해) 영문법/영작문 토익(TOEIC) 준비반, 텡스(TEPS) 준비반 중국어 회화/문법 일본어 회화/문법 프랑스어 회화

- ◆ 수강신청방법 ①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http://fli.jeju.ac.kr>) 접속 ② 수강신청 후 수강자 명의 무통장 입금 (타인 입금 시 신청서 한의 입금자명과 동일 명 입금오함) ③ 입금확인 후 수강 등록금 → 수강신청 후 24시간 이내 미입금시 자동 수강신청 취소 ④ 수강신청 등록여부: 입금 2시간 후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 '미입금'으로 확인

◆ 수강료 입금 계좌 : **농협 964-01-024722** (예금주: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Foreign Language Institute
☎ (064)754-2291~2292, <http://fli.jeju.ac.kr>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2013학년도 제1학기 한국어교원양성과정 모집안내

- 목적 :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동포 및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교원 양성
- 수업시간 : 총 120시간, 한국어이론 및 교육론 수업 100시간, 한국어교육실습 20시간
- 수 료 : 교육시간 85% 이상 출석시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자격 부여 (주최: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1자격시험 합격 시 국어기본법제19조에 의거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교원(3급)자격이 부여됨

- 모집인원 : 40명
- 지원자격 가.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4년제 대학 재학 중인 자는 직전학기까지 69학점 이상 취득자 다. 고교 졸업후 2년 이상 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육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라.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자
- 교육기간 : 2013. 3. 2. ~ 2013. 6. 29(매주 토요일 13:00~19:00, 17주, 120시간)
- 원서접수 가. 원서접수 기간 : 2013. 2. 12(화) ~ 2. 21(목) 나.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접수 모두 가능 * 우편접수는 2. 21(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 2013. 2. 12(화) ~ 2. 21(목), 18:00까지 - 접 수 처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서남쪽) * <http://psg.jeju.ac.kr/index.asp>(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사진 1매)(본교 양식)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다. 수료증명서 1부 라. 한국어교육실무 관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부 마.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부

- 합격자 발표 : 2013. 2. 22(금)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게시(<http://psg.jeju.ac.kr/index.asp>)

- 등록금 및 등록기간 가. 등록 금 : 880,000원 나. 전 형 료 : 20,000원 다. 등록기간 : 2013. 2. 25(월) ~ 2.26(화)

- 등록금 납부방법 ~ 합격자 발표 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

- 선발방법 : 선착순 선발(등록금 납부 순)

- 교육과정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psg.jeju.ac.kr>)참조

- 기타 유의사항 가. 한국어교원양성과정 교육시간 85% 이상 출석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나. 본 과정 수료시 한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수강생 등록원내에 따라 교육강좌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비 전액 환불 라. 강의장소 및 강의시간은 개인별로 연락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하여야 함 마. 학습비 외의 교재비, 자격시험 응시료는 별도 납부

- 문의처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064-754-2704~5, FAX : 064-702-5508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기업·지역인사 발전기금 기탁 릴레이

EMLSI·PMC·미로공원·김남식씨 동참

1월말 기준 현금 757억 등 894억 조성돼

제주대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인사들과 기업들의 발전기금 후원이 이어지면서 1월말 기준 현금 757억 등 물품과 부동산을 포함해 모두 894억 여원의 발전기금이 조성됐다.

메모리반도체 토탈 솔루션 전문기업 (주)EMLSI(대표 박성식)는 지난 13일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통신공학과 학생 10명에게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EMLSI는 전자·통신공학과가 참여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 EMLSI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8년째 매년 우수 인재양성을 위해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4일에는 문화관광상품 ‘난타’ 공연 기획사인 제주피엠씨㈜(대표이사 홍창도)가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쾌척했다. 제주피엠씨는 오는 2017년까지 매년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발전기금 전달은 지난해 11월 9일 양 기관의 ‘상호발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기금은 인재

양성관 건립, ‘난타장학금’ 등으로 쓰인다. 제주대는 기금 전달에 보답하기 위해 제주피엠씨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나눔 행사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제주김녕미로공원(설립자 및 대표이사 프레드릭 더스턴 전 제주대 교수)이 발전기금으로 4000만원을 기탁했다.

기업 수익금의 대부분을 제주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김녕미로공원은 지난 2003~2005년 외국인 기금교수 재원으로 9200만원을 제주대에 지원했다. 이어 2006년부터 외국인 유학생과 교류수학생 장학금, 외국인교수 연구비 등으로 지금까지 3억9134만원을 전달하는 등 제주대 발전기금으로 총 4억8334만원을 출원했다.

지난달 9일에는 (주)청봉환경 김남식 대표가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김 대표는 “인재양성관 건립과 총동장회 활성화를 위해 발전기금을 출원했다”며 “제주대 발전을 위해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EMLSI 장학금 기증식이 허향진 총장, 안기중 공학교육혁신센터장,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본부에서 열렸다.

김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발전기금을 기탁해 지금까지 2800여만원을 출원했다. 2011년부터는 (주)청봉환경을 ‘제주대 발전후원의 집’으

로 등록해 매월 10만원씩 후원하고 있다.

김명지 기자

국제교류본부서 일본 교류수학생 모집

국제교류본부(본부장 강영훈)가 2월 20일까지 올해 2학기에 일본 대학에 파견할 교류수학생을 모집한다. 파견 대학은 일본 시가대학, 메이

지대학, 히로시마 대학으로 각각 1명씩을 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국제교류본부 754-2198로 문의하면 된다.

예비대학 교육내용 대폭 강화… 21일부터 3일간

이젠 시설관리도 윈스톱 3~4일이면 수리 완료

명사특강·토크콘서트 등 마련

오리엔테이션은 25일 실시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신입생 예비교육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오는 21일부터 3일간 기초교육원(원장 현승환)주최로 ‘Pre.Univ 더 놀이! 더 멀리!’를 주제로 신입생 예비대학이 진행된다. 참가학생들은 교수들로부터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

해 꼭 필요한 학습전략의 노하우를 배운다. 또 명사 특강, 캠퍼스 투어 등을 통해 새내기 대학생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명사 특강에서는 팻캐스트 토크쇼 아마바(아찌다 마쥔 방송)의 MC윤정훈씨와 더불어 강기태(트랙터 여행가), 안영일(DCG대표), 엄지홍(웃길이 독서대 디자이너)씨도 함께하는 토크형식의 콘서트가 진행된다.

오는 25일 열리는 신입생 오리엔

테이션은 각 단과대학과 아라뮤즈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을 갖는다. 각 단과대학에서는 수강신청 방법 안내와 캠퍼스 투어 등 다양하게 실시한다. 또 전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2013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특별 강의 프로그램’도 같은날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에서 △유주 패배 예방 교육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국제메너 교육 등을 실시한다.

시설과(과장 김재학)는 오는 26일 시설관리 윈스톱 서비스를 오픈한다.

이에 따라 학내 구성원 누구나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시설이나 잔 고장을 신고할 수 있게 되며, 처리과정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시설과는 이 서비스를 통해 종전 7일 이상 걸리던 고장처리 기간을 3~4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 시설과(064-754-2101)

사람들

양영철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취임

심희정 교수 정기연주회 초청

양영철(행정학과) 교수가 지난 14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7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린 학회 정기총회에서다. 임기는 1년간이다.

양 교수는 대한민국학술원과 문화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된 ‘주민투표론’, ‘자치경찰론’ 등을 저술했다. 이 공로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도서 저작상을 받는 등 지방자치학계에서 주목하는 주요 저서와 논문을 활발하게 발표해 왔다.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대통령자문 지방자치경찰특별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중앙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 깊게 관여하는 등 이론과 실제에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견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연구의 중심학회이다. 이 학회는 학자·자치단체장·

강민수 교수 승용마 홍보대사 위촉

지방의회의원 등 각계 인사로 구성돼 있다.

강민수(생명공학부) 교수가 지난 7일 난지축산시험장(장장 고문석)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장원경)으로부터 한국형 승용마 홍보대사로 위촉돼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국 말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을 벌인 다.

강민수 교수는 말산업 특성화대학 전문인력양성센터 소장, 평생교육원 웰빙승마교실 주임교수, 산업대학원 말산업학과 석사과정 학과장, 말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종합승마터온 건립추진위원장, 재활승마카데미 원장, 제주특별자치도 FTA 범도민대책위 말분과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으면서 말산업을 블루오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연구 및 사회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심희정(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부) 교수가 지난 14일 제주문화재단 대극장에서 열린 제주도립교향악단 제 103회 정기연주회에서 Solist(협연)로 초정페 생상(C.Saint-Saens)의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g단조 op.22를 연주했다.

심희정 교수는 이어 19일부터 24일까지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제 15회 스크리아빈 국제 피아노 대회에 참가한다.

이창섭 교수 해외학술지에 논문 등재

야노 쿡쿠르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출품했다.

이창섭(신경외과) 교수가 최근 해외유명 학술지인 British Journal of Neurosurgery(영국 신경외과 학회 공식 학술지)에 Non-traumatic spinal epidural haematoma after breath-hold diving(잠수후 해녀에게 발생한 비외상성 척추경막하출혈)에 대해 논문을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교수는 물질을 마치고 나온 해녀가 비외상성 척추경막하출혈 발생으로 인해 갑자기 하지 마비가 생겨 걷지 못하게 되어 제주대병원을 찾았다가 본원 교수진에게 수술을 받은 후 건강하게 회복돼 다시 물질을 할 수 있게 된 증례를 토

이창준 교수 자랑스런 교총인상 수상

대로 논문을 발표했다. 이창준(체육학부) 교수가 지난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3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자랑스러운 교총인 상을 받았다.

자랑스러운 교총인 상은 한국교총에서 주관하고 대교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상으로 올해



첫 제정됐고, 상패와 10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이창준 교수는 38년간 교육자로서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다함께 하는 제주교총, 투명한 제주교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대학교수의 복지와 사회환보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범진(에너지공학과) 교수가 원자력 안전증진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

정범진 교수 대통령 표창 받아

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정범진 교수는 이에도 종합해양과학기술에 환경방사성 측정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중국 원전 등의 방사성 사고에 대한 조기 감지능력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에도 환경방사성 측정결과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이에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과학기술 측정자료 축적을 실질적인 지배로 인정하는 국제사업재판소의 관행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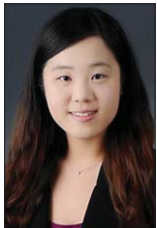
최영미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수상

양영도 점유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최영미(초등과학교육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최근 공주교육대에서 열린 ‘2013년도 한국생물교육학 학술회의대회’에서 포스터 부문 우수 논문발표상(지도교수 홍승호)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초등과학 작은 생물의 세계 단원에 대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다. 이 논문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STEAM 요소를 통합해 ‘작은 생물의 세계’ 단원에 대한 교사와 학생용 교재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 논문은 2012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대학원생 과학융합아이디어 창출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돼 연구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열정·도전·몰입·품격으로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되길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식사

식사에 앞서, 2천여 명의 자랑스러운 졸업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강의실을 떠나 그토록 열망하던 미래의 세계를 향해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공부하여 명예롭게 졸업하는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하지만, 졸업은 학업의 끝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새로운 공부의 시작이며, 참다운 자아실현을 위한 통과 의례의 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졸업은 기쁨과 설렘 못지않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으로 적지 않은 성장통을 겪게 합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저는 오늘 정든 교정을 떠나는 모든 졸업생들에게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네 가지 덕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하는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성공의 덕목은 열정(passion)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뜨거운 심장으로 열정을 바쳐 개척하는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젊은이의 열정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창조의 불씨이자, 신비로운 변혁의 에너지임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성공의 덕목은 도전(challenge)입니다. 도전은 새로운 역사 창조의 필수 조건이자 수많은 성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열정적인 도전자는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담대한 용기와 낙관적인 신념의 소유자임을 잊지 맙시다.

세 번째 덕목은 몰입(Flow)입니다. 역사적으로 세계를 변화시킨 위대한 발견과 발명은 항상 몰입의 상황 속에서 빛을 뿜었습니다. 인류사에 남은 탁월한 예술작품과 과학적인 발견은 모두 몰입의 산물들이었습니다. 몰입은 바로 여러분의 개성과 창의성을 발현시켜 줄 최고의 방식이자 전략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공의 덕목은 품격(dignity)입니다. 품격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실존과 공존의 전략입니다. 땅에 떨어진 도덕과 윤리를 되살리며 격조 있게 사는 일이야말로, 미래의 지도자들이 겸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승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과감히 도전하고, 몰입하여 살면서 행복을 만끽하는 사람

입니다. 저 광활한 지구촌과 저 무한한 우주가 모두 여러분의 삶의 터전입니다.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도전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열정과 몰입, 도전과 품격은 여러분을 새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로 키워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제주대학교는 지금 ‘글로벌 시대의 뉴리더, 혁신하는 명품대학’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모든 구성원들이 국내 20위권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교 60주년을 맞은 작년에는 대학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학기관 인증평가에서는 전 분야에 걸쳐 인증을 받는 놀라운 쾌거를 이룩했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도 5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특히 제1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94%의 합격률을 보여 거점국립대학 중 1위를 차지하는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든 대학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의 성원, 그리고 우리 대학교를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의 사랑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대학 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는 우리 제주대학교의 아름다운 전통과 명성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또 하나의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부디, 세계를 마음껏 누비면서 자신의 성공과 모교의 명예를 함께 드높이는 자랑스러운 제대인으로 살아주시 바랍니다.

끝으로, 졸업생들의 학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뒷받침해주신 모든 부모님과 가족 여러분께도 총정원으로 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재학기간 동안 제자들의 지적 성장과 인격도야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졸업생 여러분의 영광스런 학위 취득을 축하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20일
제주대학교 총장 허향진

LINC사업단 현장실습 발표회서 ‘뷰티피플’ 팀 최우수상 수상

현호봉·임나라·조아름씨

LINC사업단(단장 이상백 교수)이 주최한 지난 15일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new인적성 평가 해외현장실습’ 성과 분야별별 체험과 탐사 및 인터뷰를 통해 해외 기술 정보 및 현황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LINC사업단은 “중국에서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온 문익점처럼 특성과 분야별로 체험과 탐사 및 인터뷰를 통해 해외 기술 정보 및 현황을 가족 회사에 제공키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제주형 품격서비

스, 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물, 휴양형 MICE 4개 분야 6개 팀 23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new인적성 평가 해외현장실습은 특성화 분야별로 체험과 탐사 및 인터뷰를 통해 해외 기술 정보 및 현황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LINC사업단은 “중국에서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온 문익점처럼 특성과 분야별로 체험과 탐사 및 인터뷰를 통해 해외 기술 정보 및 현황을 가족 회사에 제공키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명했다.

발표회를 통해 실습결과를 공유해 학생들간에 상호 의견교환의 장이 됐다. 발표회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김경숙 교수(생활환경복지학부)는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자료의 완성도가 높았으며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질 높은 조사 자료는 앞으로 캡스톤 디자인에서 활용에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했다.

제일제주인센터 22일 ‘제일한인기업...’ 심포지엄

22일 인문대 1호관서

제일제주인센터(센터장 이창익)가 오사카시립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오는 22일 오후 1시30분부터 진양관(인문대 1호관) 3층 문화원형체협관에서 제일 한인 기업 및 기업가와 한인 마켓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1부에서는 후지모토 아즈사(오사카시립대학) 연구원이 ‘국제노동력 이동과 일본의 한인 뉴커머’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경원 교수는 “제일한인기업의 공헌”을 주제로 강

카시립대) 교수가 ‘일본의 한인마켓의 형성과정’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창익 교수가 토론한다. 또 ‘일본에서 제일한인 기업가 연구 동향’을 주제로 배광웅(오사카교육대) 교수가 발표하며 고희광(제일제주인센터)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2부에서는 양경희(리츠메이카대) 설립 및 성장과 한국 진출에 관한 일고찰’, ‘나가노 신이치로(대동문화대) 명예교수가 ‘제주도 경제 발전에 제일제주인의 공헌’을 주제로 강연한다.

4·3진상규명 운동사 사진전 4월 10일까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이 제주4.3평화기념관 2층 예술전시실에서 ‘사진으로 보는 4.3진상규명 운동사’ 사진전을 열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제65주년 4.3

을 앞두고 4.3진상규명운동의 기억을 담은 흑백필름을 통해 비록 힘들었지만 희망으로 가득했던 날들과 초심의 불씨를 오늘에 되살리고자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

제주4·3평화재단 관계자는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4·3의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성찰해 보게 될 것”이라며 “특히 제주대 학생들이 이 과거 4·3을 위해 활동했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제주의 역사를 알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사 학위

사회학

이영권 사회학박사
15~17세기 제주유민의 사회사적 연구

행정학

김성호 행정학박사
지역발전을 위한 어메니티 활용 전략에 관한 연구

정치외교학

김순일 정치학박사
일본 야스쿠니 신사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메이지 시기와 1990년 이후 시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영학

강성두 경영학박사
기본심리욕구, 목표지향성, 내적직무동기, 결과변수간의 구조적 관계 : 임파워링 리더행동의 조절효과

유해영 경영학박사
브랜드앱의 속성이 사용자 만족과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학

장혜원 관광학박사
문화관광자의 가치체계에 관한 연구

강태완 관광학박사
호텔직원의 자기효능감, 창의성, 서비스혁신인식, 혁신행동간의 관계

박은경 관광학박사
문화유산관광에서의 진정성이 관광자의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하회마을을 대상으로 -

교육학

원복연 교육학박사
현실요법을 적용한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강육련 교육학박사
자녀교육에 관한 부모갈등 지각척도 개발

생명공학

문정용 이학박사
Anti-cancer effect and the cell death mechanism of phytocheicals in human gastric cancer cell lines

수산학

주해성 이학박사
홍바리, Epinephelus fasciatus의 번식생리 특성

해양학

박상운 이학박사
보하이만, 황해 남동해역 및 동중국해 양자강하구역 니질 퇴적물의 지화학적 조성과 기원지 연구

생명과학

김지영 이학박사
몬사오니에서 황화합물의 분해세균의 다양성과 신규 균주의 특성

식품영양학

강민속 이학박사
In vivo and in vitro effects of chestnut(Castanea crenata) inner shell on antioxidant and cardiovascular -related parameters.

유성희 이학박사
In vivo and in vitro effects of Ginkgo biloba leaves on cardiovascular and bone-related

parameters in menopausal model.

수학

허성희 이학박사
TERM RANK INEQUALITIES OF BOOLEAN MATRICES AND LINER PRESERVERS

의류학

현명관 의류학박사
추사 김정희 전각의 조형성을 응용한 캘리그래피적 텍스타일 패턴디자인

식품공학

김유경 공학박사
제주지역 토착 섬유소 분해성 바실러스 균주의 분리, 섬유소 분해효소 유전자의 비교 및 오이 육모예의 응용 (Isolation of cellulolytic Bacillus species indigenous to Jeju Island, comparison of their cellulase genes and application to cucumber seedling growth)

에너지응용시스템기계공학

케이카티케안 공학박사
논문명
Graphene oxide and Graphene nanosheets: Tunable properties and Multifunctional Applications

에너지응용시스템에너지화학공학

문수형 이학박사
제주도 표층부 및 심부에 분포되어 있는 스코리아의 중금속 흡착 및 미네랄 용출 특성

에너지응용시스템전기전자학

푸루슈 공학박사
Improved Detectors of 24 GHz UWB short Range Radar system in Automobile Applications

농화학

장공만 농학박사
제주도 대표 토양에서 Lysimeter를 이용한 농약의 용탈

전기전자학

김재홍 공학박사
풍력발전 출력보상을 위한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일반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오성철

일어일문학과
최희숙

중어중문학과
김성은 강석훈 박희영 전휘

사학과
전지선

사회학과
조정희

철학과
이유나

경영학과
문신희 유매 직옥걸

관광경영학과
김용원 유신 정규렬 의곤 강현수 김세미 김세일 조정인

무역학과
왕호정 조영화

경제학
어던체책담딘

농학과
고윤정 김수빈 현승용 황록연

원예학전공
이중석 고명석 오은의

생명공학과
고승희 박미영 허창현 강지남 김수연 윤선영 정하나

해양생명과학과
송창영 강나래 김동휘 김은아 홍승현 바티게 산자야 박아름이 정주영 엘비티갈아 돈 아누시가 오민영 프라마찬드라 호라네 카라아라게

환경공학과
전시범 강조봉 임성록

토목해양공학과
김용석 양원석

생물학과
유한수 변후돈 강대현 강승우 김정환 윤선아

화학과
김수영 김현아 부준오 양인정 이승훈 임준환 정지영 황은영

수학과
이정현 김현아

전산통계학과
김인경

가정관리학과
윤재희 송현종 김후자 송한나

에너지응용시스템 기계공학과
고지운 김봉천

에너지응용시스템 에너지화학공학과
임철규 강인재 고란영 김원직 박경호 신상웅 안웅진 장영준 채명선 홍윤정

에너지응용시스템 전기전자과
김진

컴퓨터공학과
강무삼 문유형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양정규 카르만알리

의학과
남욱 김경민 천명순 김은지 김태윤 성길명 양영로 유정래 이용현 전봉희 정우성 채두병

간호학과
강군생

미술학과
이성종 유창훈

음악학과
강지혜

풍력특성화협동과정
허수영 명호산 문서정

응용생명공학과
최승재

해양시스템공학
김정록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박서현

국어교육전공
김효선

일어교육전공
문공진

윤리교육전공
김현기 김훈갑

사회교육전공
오영재

역사교육전공
고혁진

가정교육전공
김부강 윤은혜

영양교육전공
김희은 김경자

체육교육전공
박철형

미술교육전공
부윤자 김동순

초등실과교육전공
김수정

초등컴퓨터교육전공
남충모

초등교육과 초등도덕교육전공
최재영

초등체육교육전공
이용중

경영대학원

경영학 인사관리전공
김인숙 양창영 윤미향 이정엽 한광숙 홍성오

경영학 마케팅전공
김경훈

회계학과
고창균 강중호 강지숙

관광경영학과
박영준

경영정보학과
이창을 김성인

관광개발학과
김광택 김범승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
고홍범 김귀녀 김상현 김진선

정치외교학과
윤상흠

산업대학원

원예학전공
오용화

동물자원학전공
오명은 이순영

전기공학과
부정환

농업경제학과
고창혁 김상훈 김유현 김정연

토목공학과
박철수

환경공학과
현훈철 고은아 오재영 박용모 임성재 채점석

통역대학원

한영과
이미정 김지은 정혜진

한중과
손천천 최룡 한미애

한일과
강미정 이상희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전공
김화경 박미연

스토리텔링전공
김명혜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윤한결 이탁수 오지훈 양현주 서유미 오지홍 신덕현 강지연 배진형 오수현 이화영 오성은 원지혜 김지현 박혜인 김동영 신정현 김명우 임채문 강민우 우서경 김원일 정수빈 서민지 조승연 정승아 김다빈 이승현 김나리 김완 허선미 이운섭 김민기 최홍희 김소희 이정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이주상 박현민 고민정 고우리 김봉우 김용학 김진성 김형주 민우기 박동하 박성현 반희성 손민수 신영희 안홍모 오근영 오윤경 이능룡 이선형 이순규 장승혜 장영선 장영은 최선영 최효선 하지환 한성수 한창현 황성현 박재홍 이승환 이호선

학사 학위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정현도 장영근 이영준 황이삭 정종민 김미리 김수아 김현진 문혜경 박여주 임미애 강현아 박향아 문영희 홍진아 장승주 임미랑 장소영 이영유 오민지 김지선 한다미 김향진 백은철 백경아

영어영문학과
김진석 박성경 박재범 오승훈 오동률 라용근 강은혜 오소연 정희영 민소연 박지영 한현주 홍서영 권인 박소현 윤현선 권재원 김영진 최선

독일학과
김준형 김한솔 전현익 고민아 김승진 박소는 안소향 오영룡 이지혜 지연 임보림 김지혜 고아름 나정혜

일어일문학과
김보찬 윤민석 김지수 김화정 김효진 원대연 이재진 이홍재 제영복 조미숙 허정환 강지은 허지철 강정임 김경래 김근희 강은지 김혜연 김나미 송진영 신현임 양미희 양유리 오수지 정주연 최예지 손명숙 김나래 김향순 최훈임 김래연 김석동 문성원 배수현 진민정 현창진

중어중문학과
김경도 김정훈 차가운 서미라 양익준 강미희 강민주 강승희 이혜원 김다래 김민희 김선옥 김진선 김혜영 서소희 송도영 양민정 양여은 양유림 윤이나 전선영 홍경민 박소리 남진아 천민경 신미주 박수빈 김민경 이권혁

사학과
김보연 오명석 강지숙 김영모 이혁 강한철 김기용 심영일 김미진 오은경 윤호성 백승관 강해영 홍성민 문지원 조윤영 문명식 김수정 이성욱 정정인 임미영

사회학과
문경필 정태환 김중운 고재근 김은정 서청우 신동우 오인범 윤용석 홍종환 차상엽 김다솜 김해진 문은비 신의주 이지선 허인영 김태형 고대용 홍여주 송지현 강은영 김유리 이수지 신평샘 현지현 김상이 조예은 현명화 전다예 강지민 오세라

철학과
윤병현 정보람 고영신 유효성 이종서

법정대학

법학부(야)
김현수

법학부 법전공
김상우 홍인후 양아영 조원준 김동훈 박성호 송은우 진승미 강대하 강동현 강현수 신우성 신원식 양은수 윤영석 이용혁 이태경 정의철 정준호 진용준 홍의석 강지희 고민중 김수빈 김익환 윤승현 한승호 진상혁 김민형 강민경 고은희 김부식 김소연 김소혜 김해인 박지은 백진영 장해원 현선미

법학부 국제법무전공
정새롬 현시홍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이민승 좌영희 이승화 김석훈 정용환 강권오 이진혁 장은채 강보승 김전홍 박대진 이시훈 홍수미 강정민 강아람 강진주 노명숙 홍수은 고은진 강선경 강수나 박정은 이현주 강소연 정지현 고지영 김정민 오진영 이미나 원고운 김호정

정치외교학과
홍성표 오민규 김형민 조효진 고순미 강승구 고현준 김승기 권해모리 박향훈 이신혜 조미경 김보배 허윤희 김국헌 윤지숙

인문홍보학과
양지민 한정용 정수진 김시현 조남효 김윤정 박장성 임지형 현지선 강소영 부경미 오주혜 정유정 서주연 장양진 이지화 홍윤지 고주연 송현정 강은주 이종경

행정학과(야)
조경석 김현일 김수경 임진철 김성희 신유정 구민혜 김성태 고연희 강임선

경상대학

경영학과
강승희 강동완 강유철 김충훈 오원석 이준호 진정용 이찬현 강우재 강정우 고대운 김진영 문성호 박효석 송민석 오소묵 오영준 윤선준 임동오 장경호 채상원 강종남 한재범 김준 김상훈 황선홍 고경우 김태홍 오원택 최슬애 현은주 현정화 조태권 정소담 양윤진 오다비 임지현 장희준 주미진 허다희 오능욱 정민수 이선 최아름 한승희 이아람 배에스터 김상철 오성호 박수연 장소라 강명진 김은정 김현지 고아라 김다미 김현민 서유단 조민호

관광경영학과
김홍우 김태호 김영연 문대욱 조민현 강슬기 김지혜 김창재 김태영 김한빛 김희수 이영화 한청훈 차가영 강예리 김윤지 김준호 김태현 오지향 이경목 이유석 이하느리 정이분 정지은 홍관수 강리아 김은선 강희영 고민리 고아라 고지운 김예슬 박은영 송민정 오다은 오은주 윤진희 좌은희 허윤미 홍안나 오지영 양문희 양금정 우재훈 왕림 서하 손유 손호

회계학과
문정호 김봉철 김판수 오홍운 윤성현 부종훈 강덕현 강철승 송현민 오용승 정진익 홍정연 현준식 고경범 강윤미 고은석 김경진 김동영 오재혁 오지섭 한수전 강창중 노지혜 변경옥 양승진 양진혁 이수안 이정일 최보연 김현영 김형미 박은주 이윤영 한아름 황보희 진나현 김도희 임수빈 이소연 현나희 나원희 김진희 문지영 강혜연 이정민 이은하 이지은 진요

무역학과
김윤선 원창근 오철승 현세원 김한 강지훈 김상기 김승용 홍대진 홍영화 고유정 오동현 정수정 고덕호 강인경 고민영 박미라 박새날 박승희 양연이 우해체 강혜진 이보라 황은정 공한나 강지혜 이주연 정태훈 우인식 고나영 김예지 김대영 설산 임재현 장몽추 증몽영

경제학과
정지훈 김지환 양경주 전우영 김명남 고범혁 강규보 강승균 김태연 양성필 전용구 현석정 고종산 김소희 김주현 박소영 양수지 이철수 권지혜 정진 송지선 고영민 오숙경

관광개발학과
이형우 강창협 오형은 김나연 김명주 김성수 김소연 김연아 강민주 고아라 구영현 김민희 김지수 신예진 이세희 신성민 조정하 이혜진 오지은 강효주 김유진 김승현 고혜진 임윤이 양효취 허금주

경영정보학과
한경훈 고희관 양여정 김동훈 김진성 이요셉 김지용 김수민 오종민 장지훈 최재선 김아람 강주연 김해미 최지수 이영재 강수연 박민경 허민지 김유나 남수정 이민정 이수민 오보람 문선영 오소연 이유나

경영학과(야)
한훈지 김나나 김현수 박미영 임남균 허선희 김정혜

학위취득을 축하합니다

회계학과(야)
이데레사 백송이 이미수 손지승 김주희 김효정
현성건

관광경영학과(야)
위성우 이승민 김요한 김현석 신세휴 하명수
김성민 강호철 김재윤 홍현기 김하니 정수정
허성환 문보미 정다희 김민주 강수연 이미선
김우중 김현희 부지선 이나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오미선 고종석 김동호 현운선 강인천 장원준
조지훈 홍석훈 현영은 성완 류형수 현보현
김혜진 윤애경 이하늘 김기숙 고기랑

영어교육과
김영남 양동석 박성학 신동석 이유정 이지연
강슬기 고주연 김현이 송창미 오지영 장윤경
현선영 문재영 오진주 임예지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
박미정 이정민 강우는 강보람 박주영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전공
남보성 조혜정 고현진

윤리교육과
박성준 이대웅 이상근 최승은 김주희 고원정
현은애 허은지

수학교육과
강태영 김재민 송혁 양원석 이승용 임우영
임정휴 김나영 김한글 강효정 고은아 부현정

과학교육과 물리교육전공
양원준 고원준 김용훈 이상민 장수영

과학교육과 생물교육전공
전호진 김정민 류은혜 김수영 강소연 한란
오민주 강민지

컴퓨터교육과
고승혁 김민수 고동현 고정욱 김상범 김진혁
김희리 양진원 박소정 한민지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물산업학부 식물자원환경전공
현도경 고윤철 오상학 고희철 김도훈 김용성
박정훈 이용호 차진우 김봉진 양지순 고용훈
현경아

생물산업학부 원예환경전공
이승민 고동우 이상중 홍성림 박은선 양은석
강인경 박근아 강슬기 강미림

원예생명과학부 원예과학과
이재웅 현윤태

생명자원과학학과군 식물자원과학과
박지하

생물산업학부 동물자원과학과
김경환 김용철 김현수 고홍준 김영화 이현정

생명공학부 응용생명공학과
임순재 강승범 고덕훈 김석준 조소현 고희영
이한규

생명공학부 분자생명공학전공
고호현 강진호 김진홍 조영래 고동연 김승현
김우남 김태훈 전관우 홍만철 전진휘 한지아
임나라 전순도 차지원 문소영

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김태영 양익중 양익동 최훈 방성연 김혜민
정세영 장연주 고미정 장은진

산업응용경제학과
허성웅 권영익 강웅진 고영민 박해민 양재봉
오경훈 홍용준 김가린 이은상 강현주 안성미
송혜정 김지인 강재혁 김소희

해양과학대학

해양의생명과학부 해양생명과학전공
이승훈 최준영 오현석 김나단 조유리 강이유다

해양의생명과학부 수산생명과학전공
장진수 김지훈 양홍준 강성웅 조일제 김태홍

오민욱 고은성 김현수 박윤미 오원보 이민성
홍정목 김민선 문해나 문경미 이승이 강슬피
김은수 김보람 정지은 이초롱 장여욱

지구해양과학과
한대중 조동진 강재호 고석민 김동윤 김명진
김유진 김춘구 신동현 최유나 하은욱 안소정
최다해 최다희

환경과학과
강병철 고광호 이범수 이민정 부하정 강유미
양지수

토목공학과
강현진 김수환 최기석 김경민 박성언 최수병
황정환 강동훈 강보성 김민혁 이승익 최현근
한광표 고석형 한창엽 고원경 강해연

해양시스템공학과
문중현 현종윤 김한수

해양산업공학과
박지훈 유진우 정진호 하민수 김동진 김민석
김지현 김지환 오호진 이승도 김경진 김현진
오성민 오유정 문유미 박지호 이태현 김교민
문경원 이재현 변미선 김소라

해양과학부 해양생산과학과
고준서

해양과학부 해양산업공학과
좌민철 김병진 박상현 유호진 이재철 김진수
마해성 신정호

해양과학부 토목환경전공과
김호철 임나영 허원석 고충희 현재호 고현수
이태권 고태웅 김홍범 명석완 박은아 유혜인
김준영 문지원 김준웅 오재곤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이태윤 현호연 이강민

생물학과
고은이 김민호 강상범 강현태 김재민 오미래
임계현 이연지 박탐이나 손지현 오수경 유아
영 서가영 송지혜 김미희 홍인철

화학과
고학림 김동진 강희건 이용범 강승협 고취섭
정성길 이다나 이은숙 강지미 문미소 손현식
송희 이진형

식품영양학과
이대로 한종국 강혜정 전하규 고은성 강지은
김엽지 박선옥 박은진 송빛나 신지혜 전명화
전혜성 최정진 고유리 김정은 김경미 강지혜
고서윤 이유영 양호선 유연승 강혜원 김유나
변금단 김다비 조은주 박영미 강민경 박소연
고은주 강민정 황해솔 황연지 윤진영 장현진
허수진 이경민 김민지

수학과
김지훈 고라현 김신진 김동우 변지수 김지훈
이지현 안경원 이진선 고민정 김지연 이슬
박은별 정유미 김호프만

가정관리학과
황경미 정진우 현은주

전산통계학과
최정환 김군석 김태현 장태영 강기진 부종민
장문복 김지는 이숙정 이예옥 진미연

생활환경복지학부 아동·생활복지전공
김우현 이가인 진순희 강지은 양지혜 김은선
박은민 배호정 한지연 한가는 김민정 박소희

생활환경복지학부 주가·가족복지전공
양유찬 김유미 김별남 양순여 김민숙 홍주연
허연주 김경옥 한다솜 지미희 안정아

의류학과
유성민 이원우 김경탁 강형석 이현주 김지은
박주현 박미진 김수연 서해여 곽서 욱빈 박
진주

체육과
최신영

체육학부 체육과학전공
김형우 유재신 김경우 김경오 이명훈 김민범

오민경 김유진 김선 강건희 박보배 고현규
우주희 홍미정 이아영 양승우 김민철 이대현
정상수

체육학부 레저스포츠전공
김가람 이종홍 현종석 강봉관 강종식 광도규
김하정 이승민 전진수 진근후 한영진 정성주
김병수 김정균 이지민 부은광 김민규 김예슬
김봉수 이승학

공과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임진형 강민준 강승호 박상민 이동원 이준희
임태준 강상수 김주선 김소연 현승렬 김민희
정란 류현진 이혜인 강혜정 고은혜

기계시스템공학부 기계공학과
김중호 한승훈 강윤호 고혁상 김경대 김도엽
김동석 김민우 정준선 주범철 한민철 허남호
홍성준 고명균 고원빈 김태형 이윤성 정현섭
홍용철 신태석 윤대기 박대환

기계시스템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황새벽 오석주 이광현 김민성 김진배 오상우
장현석 좌승현 강민상 강래운 고수훈 김성범
문상준 이기민 이준일 김태현

통신공학과
강주호 이현석 전승진 정우준 강영주 강태경
김용섭 김태훈 박장환 홍석빈 고동익 고민성
김우진 김석진 송승환 현상해 홍진호 장의용

에너지공학과
박형철 김형태 고대욱 고지호 강성규 강지현
김덕우 서희창 양용우 양중근 이경재 이동현
하준 김승신

컴퓨터공학과
허재원 임형관 김민후 박한지 윤의돈 이광현
강동민 강석민 강우진 고규호 김민규 김봉상
김현우 문종필 전용진 정재훈 한진수 김용수
문영준 박철희 신승원 양지철 오대현 오승준
강지윤 현소영 하남

전자공학과
문경준 오재민 고승윤 양영훈 양태준 강지웅
김민석 현종호 고명재 공문환 김재연 오승준
좌아름 고훈준

전기공학과
박성국 정상형 김형진 이영필 강경훈 고희길
홍정현 강명수 강상균 강승호 강인범 강제민
김동진 김영찬 문승준 문유현 박정현 이재봉
현호림 홍성환 이도현 임성현 강용택 김지환
문제운 박철우 백경호 변성욱 안정진 양우영
오명현 전영국 정우철 홍승보 고혁진 임형근
강태훈

생명화학공학과
강창훈 고인애 공선영 김영록 김은지 신윤경
현윤정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이동윤 강익종 김민혁 고건영 고동진 김민영
이진경 김성은 오로라 임요한나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김현아 강호경 박석우 박선옥 송병철 김형범
문성준 성진현 김찬우 장형준 장해주 진미경
이원국 임도원 김성훈 강창수

의과대학

의학과
김무현 윤민호 오민수

교육대학

초등교육과 초등윤리교육전공
윤수지 정희원 임남훈 한현지 강유미 고수정
정혜원 노지현 이은지 은다혜 박소원

초등교육과 초등국어교육전공
고아라 김보연 김보라 양혜인 장유경 김소형
박미혜 현정희 박지우

초등교육과 초등수학교육전공
김지혜 김재연 차수영 송은선 김민호 김궁연
김보라 김지현 이은실 고수현

초등교육과 초등사회교육전공
오현경 강나리 이승희 백상윤 이현지 한승희
천민경 서희경 김하나 김진희 서영빈

초등교육과 초등과학교육전공
오민규 현수미 전지희 여인주 고기범 이다을
정신화 윤현서 김정무 이지아

초등교육과 초등체육교육전공
김도희 현진성 임광호 정문영 문수지 김홍석
김태환 송유라 김관민
초등교육과 초등음악교육전공
오혜련 송지은 이근 김지연 조혜연 고지연
오유지 윤나라 김수연

초등교육과 초등미술교육전공
현수지 김지현 조혜진 이혜림 강가람 박선영
전혜민 고하나 현지현

초등교육과 초등실과교육전공
문준현 문충현 박소연 김광호 진현아 고승환
김도윤 고선미

초등교육과 초등교육학전공
이진아 안지영 현영지 김지수 최가람 강윤정
이경아 오인택 김경주

초등교육과 초등영어교육전공
김현일 강혜진 강보성 문지용 백민주 채민주
조은별 황형진 박수연 성경연 오유라

초등교육과 초등컴퓨터교육전공
노경민 박민정 이요한 강주한 임마누엘 문우중
고영혜 안재호 이예은 이나래 고경리 한승화

수의학대학

수의학과(본)
노현중 정인우 김경목 노소구 박현의 이정호
현창수 백진선 홍영진 강소희 공태환 김남열
김동욱 김동휘 김상현 김성관 김성원 김형준
김형진 박영욱 박종문 박준범 박지원 배연지
설영록 승영선 양원준 엄경민 오한솔 옥선재
윤문수 윤지연 이민경 이철호 임재학 임지형
정병우 조유재 조용찬 좌승민 한만권 황재우
이보란 윤티파나 모중서

간호대학

간호학과
최용성 홍지수 양진영 김다혜 오소연 박수
빈 장혜정 한정홍 윤가영 김미나 오성영 최
노을 김슬기 이유미 고서연 이민희 조수진
고은비 김하얀 양지는 고은고 문혜영 김재
희 강명진 정혜진 김소진 송인영 박수연 성
명주 임현경 김경림 조봉아 박진영 이은정
고다영 박경원 임사랑 강지연 황진희 강민
주 양윤정 강슬기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문성공 강현차 강민주 조은새랑

산업디자인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김경미 강경록 이은의 강혜빈 고은지 김민지
소은영 양애솔 장혜선 김혜연

음악학부 작곡전공
홍희정

미술학부 서양화전공
김유나 박주은 이가희 박하나 양지선 정혜윤
강수진 김수은 고은영 이승미 변수민 김진희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학과
문상봉 문주환 김민정 전업지 조수정 정소리
강민경 김미진 김인선

음악학부 성악전공
박윤솔 문자현 김애리라

미술학부 조소전공
박지현 김미영 오소민

음악학부 피아노전공
김민정 한지희 김한나 고미희 강정은 황보선영
이수미 고새미나 신선화 오예진 강선의 이지은

음악학부 관·현악전공
박중현 김근후 이인환 고걸 김찬을 지혜
고철호 양희선 강초희 채정란 홍영진 고길표

박사 24명
석사 244명
학사 1567명

STS 과학문화 시사칼럼

이 칼럼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후원으로 제주대학교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
에서 기획 운영합니다. STS연구센터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 홈페이지(http://sts.jejunu.ac.kr), 트
위터(http://twitter.com/jejusts), 페이스북(http://facebook.com/
jejusts).

제주도의 과학기술 기반을 활용한 과학기술교육 활성화



고영해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
연구원

우리 주변에서 과학기술을 이용한 제
품을 쓰지 말고 생활하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불편을 느낄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
하고, 정보를 검색하거나 음악을 듣고,
자동차를 타고 편안하게 이동을 하고,
냉난방기를 이용하여 쾌적한 실내에서
생활하는 등 과학기술은 우리 생활과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하지만 이
런 과학기술의 편리함을 누리는 모습과
는 대조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냉담하기만 하다.

우리나라에서 수학이나 과학 등의 이
과계열 과목에 대한 선호도는 타 교과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고등학
교에서 인문계와 비교하여 이공계열에
진학하는 학생수도 부족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의과계
열로 몰리고 있다. 이는 이공계열에 대
한 처우문제나 개인의 선호도 문제도 있
지만, 기본적으로 수학이나 과학 등 이
과계열 과목에 대한 인식과 친밀감이 낮
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이런 경
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2010~2012년) 간 제주대학교에서 자
퇴한 이공계 학생은 413명에 이르고 있
다. 지난해만 이공계생 137명이 자퇴해
전년 대비 24.5%나 증가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을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런 관
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
움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주특
별자치도는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가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지리적, 인문사
회적 여건상 최신과학기술을 상용화하
기 위한 시범단지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



제주대 과학기술연구센터에서 주최한 제주유티링 사 이언스 '자연의 과학' “바람불다” 태풍 가상실험 체험

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이 사회에 적용
된 사례가 풍부하다. 따라서 실생활에서
과학기술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여건
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탈취 장치를 적용
한 클린하우스 시설이 제주도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그린에너지를 위한 풍력발
전소, 태양광발전소가 현재 에너지를 생
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T와 에너지
를 접목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가 제
주도내에 있고, 많은 체험센터가 설립되
어 있다. 전기자동차도 제주도내를 돌아
다니고 있고, 전기자동차 충전센터도 곳
곳에 설립되어 있다.

이런 기반을 이용한 과학기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어떤 학생들
의 체험 교육만이 아니라 중, 고등학생
같은 청소년, 더 나아가서는 중, 장년층
에 대한 과학기술 교육이 필요하다. 이
런 과학기술 기반을 이용한 다양한 과학
기술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과학에서 기
술로, 기술에서 사회로, 다시 사회에서
과학으로 연결되는 과학-기술-사회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선
순환 고리는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
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다른 지역이 아닌 과
학기술 교육의 기반이 갖추어진 제주특
별자치도에서 시작한다면 제주도가 더
이상 우리나라의 변방이 아닌 과학기술
문화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과학기술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
그 변화의 바람을 기대해본다.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STS 과학칼
럼> 연재를 마칩니다. <편집자주>

통역·번역은 제주대학교 통역번역센터에서!

제주대학교 통역번역센터는 통·번역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
온 우수한 전문가로 구성된 인재풀을 활용하여 전문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제주 국제자유도시 통·번역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1. 번역서비스

구분	언어	단가(원)	비고
한국어 →외국어	영/중/일	협문 1자(공백포함) 90원~120원	단가는 나이라도에 따라 탄력적 으로 적용되며, 번역료는 해당 언어 외에인 감수료 포함 급 역임
외국어 →한국어	영/중/일	결과물기준 11포인트 25행1매당 40,000원~80,000원	

2. 통역서비스

구분	언어	1시간 이하	2시간 이하	3시간 이하	6시간 이하	6시간 초과시
동시 (2인)	영어 중/일	500,000	500,000		700,000	-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 (1인)	영어 중/일	500,000	500,000		700,000	
수행	영/중/ 일			200,000	300,000	-시간당 50,000원추가

* 모든 요금은 1인 기준임.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부설 통역번역센터

☎ (064)754-2437, E-mail:coti@jejunu.ac.kr

대학개혁 신발끈 조이는 연찬회… 교원연구실적 강화·취업률 62% 목표

2012학년도 연찬회 ‘다 함께 만드는 행복한 대학 공동체 보고회’

2012학년도 연찬회가 지난달 11일 오후 2시부터 아라뮤즈홀에서 열렸다.

‘다함께 만드는 행복한 대학 공동체 실천 전략보고회’를 주제로 한 이번 연찬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 총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행사는 매년 개최됐던 기존 연찬회와 달리, 각 부서장이 주관하는 단위기관별 주제 연찬회와 총장이 주관하는 전체 연찬회 2단계로 구분해 진행됐다.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국 및 직할기관 등 단위기관별로 실시된 현안 주제별 연찬회에서는 업무 개선 방향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

총장이 주재하는 전체 연찬회서는 단위기관별 연찬회에서 나온 결과를 반영해 201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발표 내용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구성원들의 의견과 건의, 질의 답변 등 토의가 이뤄졌다.

교무과 전임교원 논문실적 제고

교무과는 “전임교원 승진, 임용, 업적평가 등 교원인사평가제도 분석과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전임교원의 실질적인 논문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대가 지방점국립대학 중 논문실적 최하위, 대학평가 연구부문 하위권을 땀도는 실태를 의식한 것이다. 현재 제주대 전임교원 중 38.6%(3년 평균)가 1년에 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 학술지에 게재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교무과는 이를 위해 재임용 심사시 연구실적 강화, 승진 심사시 연구실적 강화, 정년보장 심사시 연구실적 강화 등을 해결 방안으로 보고 있다.

또 교무과는 교원들에게 논문 집필 장려를 위해 저명학술지 논문발표장려금 지급, 장단기 국외연수제도, 공모연구과제 지원, 저명학술지 논문게재료 지원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사과 학생상담 강화할 것

학사과는 휴학, 자퇴 등 학생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학생 상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사과는 경기침체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대 학생들의 중도탈락률(휴학 또는 제적 비율)이 2011년 2.8%에서 2012년 3.2%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특히 제주대는 학생 제적비율이 9개 거점국립대학 중 최고인 5%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학사과는 현재 책임지도교수 상담이 대학생활 적응 등 기초진단자료가 부족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기초진단을 활용한 상담을 통해 학생 중도탈락 방지하고 취업지도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신입생 기초진단, 인적성검사, 가정환경 등을 담은 학생상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중도탈락 위험요인별 학생 선별,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또 어떻게 수집된 정보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상담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학사과는 이를 통해 올해 전년대비 중도탈락률(휴학생, 제적생)을 10% 감소시키겠다고 밝혔다.

학생복지과 장학금 확충 등 학생복지에 총력

학생복지과는 국내대학교류, 해외문화체험, 테마별 세계교육기행, 통일안보연수, 학생자치기구 지원, 사회봉사, 교육기부 활동, 장애학생지원 등을 지난해 실제로 발표했다.

또 올해에는 4.3 유적지, 제주역사탐방, 아라봉사단 국내의 봉사활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기부, 장학금 확충과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 발전기금 장학금 배정 확대, 교외 장학금 유지활동 다각화(도내외 장학재단 및 기업체 지원유도, 졸업생 지역인사 장학금 유지) 등을 통해 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장애학생들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등에 승강기 설치, 시각장애인용 촉지도 설치 등을 통한 편의시설 확충, 학습기자재 확충과 정기적인 상담을 통한 교수학습지원 등이 주요 골자이다.

장학금 확충에 대해 정종덕 대학원장은 “학부의 장학금이 지속적으로 확충되는 반면 대학원의 장학금은 전년 대비 하락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학생복지과는 “학부의 국가장학금

현안 주제별로 업무 개선 방향에 논의해

대학 구성원 참석해 건의와 질의응답도

장학금 확충·시설 신축 등 기관별 목표 설정

지원은 증가했으나, 대학원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자금지원이 감소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학원의 장학금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입학관리과 홍보 다각화로 우수 신입생 유치

입학관리과는 올해 입학사정관제의 내실화, 신입생 학력수준 4등급 이내 진입,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 등을 포함한 성과목표를 발표했다.

또한 신입생 유치를 위해 홍보 방법이나 매체 다양화, 입학안내 홈페이지 전면 개편 등 등을 통한 홍보 강화 방안을 내놔다.

기획평가과는 작년 한해 2단계 국립대 선

진화 방안 실천, 한국대학평가원 대학 기관

평가 인증 획득, 개교 60주년 행사의 성공적 마무리, 교육역량강화사업 운영 등을 내놔다. 올해는 선진화 정책 실천 로드맵 수립,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의 통합적 관리, 각종 대학 평가지표의 전략적 관리 등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대학시설의 효율적 관리, 각종 국책사업 유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도내 기업 등과 협력, 교직원과 학생 등과의 간담회를 여는 등 대학 공동체 구성원과의 소통 증진 등을 통해 대학이 한걸음 도약할 방안을 구상했다.

총무과 직원 역량강화 통해 행정체질 개선

사무국은 행정지원 체계 개선을 최우선의 목표로 선정했다.

그 중 총무과는 성과주의 도입을 통해 행정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역량

평가제, 핵심역량 교육 등을 바탕으로 직원

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과 등록금 효율적 관리 이끌 것

재정과는 국유재산의 효과적 활용,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 절감, 등록금의 효율적인 관리, 회계 담당자 직무수행 능력 강화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설과 대학시설 공사로 교육환경 조성

시설과는 교육과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시설여건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과의 주요사업으로 대학시설 신축과 리모델링, 환경개선 등 보수공사, 캠퍼스 또는 공모전을 통한 에너지 절약실천 장려, 캠퍼스



지난달 11일 아라뮤즈홀에서 ‘다함께 만드는 행복한 대학 공동체 실천전략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김형준 기획부처장이 기획처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안전관리 등을 꼽았다.

산학협력단 산학연클러스터 조성 등에 앞장

산학협력단은 올해 7대 역점사업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기술사업화 기반조성, 대학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 신설 등을 꼽았다. 그 중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은 제주대와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주변 지역을 활용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제주특화형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개발해 대학과 기업을 묶는 선순환 산학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취업전략본부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취업전략본부는 올해 취업률을 53%(6월 1일 기준)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후반기(12월 31일 기준)는 62%를 목표로 삼았다. 취업률을 전년 대비 5.3%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작년 제주대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47.7%. 지방거점국립대학 중 평균 53%에도 도달하지 못한 8위에 위치했다.

취업전략본부는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해외취업 인프라 확충, 진로와 취업 상담강화, 취업역량강화 프로

그램 운영 등을 통해 취업률 목표를 달성할 것을 다짐했다.

국제교류본부 학술교류 확대와 다변화

국제교류본부는 학술교류 확대와 다변화, 학위과정 유학생 유치 및 해외파견 교환학생 확대, 교환학생 유치 확대, 한국어과정 운영 내실화, 인터내셔널 서머 스쿨 운영, 외국인 유학생 지원과 관리 강화, 유학생 동문회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교육원 교양교육 내실화 이끌 것

기초교육원은 교양교육 체계화 내실화, 신입생 예비대학, 제주대문화광장 운영 등을 통한 기초교육 프로그램 강화, 교수학습지원 강화 등을 이끌어 내겠다고 발표했다. 신입생의 기초교양 역량에 대해 김철수 자연과학대학 학장은 “학생들이 기초적인 교양지식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기초교육원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서 수준별 고려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올해에는 수준별 운영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제주대학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소의리와 함께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외 명강사를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JDC 대학생 아카데미는 지난해 12월 4일까지 총 13개 강좌가 열렸습니다. 다음달부터 새롭게 여는 JDC 대학생 아카데미에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역 한계 극복 위해 전력투구하길

눈은 하늘을 보고, 발은 땅을 밟아라

김수중 탐라영재관 관장

1974년 한국일보 기자로 입사해 30여 년간 언론에 몸을 담았다. 은퇴 후에는 저술 활동과 더불어 지역의 후배들을 교육하는데에 힘쓰고 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딪치고 겪었던 일들을 후배들과 나누고자 지난 2008년 비영리단체 HRA(Human Resource Academy)를 만들었다. ‘지역의 인재를 키우자’는 신배들의 뜻을 모아 강의 대부분이 재능 기부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역의 학생들의 가치를 높이고, 학생들 스스로 내 삶의 가치가 뭔지 얻어갈 수 있도록 깨닫는 것이 아카데미의 목표다. 1년 과정의 HRA는 30~40명의 대학생이 1년간 세 갈래의 커리큘럼을 이수한다. 인문학 고전 100권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 기업 경영을 학생들 스스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수업, 봉사활동하는 수업이다. 토요일 하루 8시간짜리 수업이지만 주중에 두세 배는 되는 시간을 준비해야 겨우 따라갈 수 있는 다소 혹독한 과정이다. 자발적인 강제성을 부여해야만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다. 20대는 인생에 있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기에 그렇다.

미래의 패권을 위해서 현재를 참는 사회가 문명적으로 승리를 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60세가 넘도록 살아보니 20대에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0대는 대단한 시간이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20대의 능력과 30대의 능력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20대야말로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영어어가도록 하고, 꿈이 없는 사람은 찾아가는 시기다. 아무리 꿈이 크고 좋은 꿈이라 한들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농경사회를 지나 산업사회, 지식사회까지

3세기의 물결은 제주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야 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대학에 다니던 40년 전에는 30~40명 타는 작은 비행기가 하루 두 편씩 났다. 지금의 제주공항은 규모에 비해 가장 붐비는 곳이 됐다. 한 세대 만에 몰라보게 변해버린 것이다. 지난 세대 제주도는 농업경제가 주를 이뤘다. 제주도는 농업사회에선 가치가 없는 곳이었다. 한반도 끝이라는 영토적 관심밖에 없었다. 산업사회에 들어서니 경상도나 울산이 주를 잡았지, 제주도는 신흥여흥 오는 곳 정도였다.

지식기반 사회로 접어들면서 급속히 달라진 환경이 여러분을 기다린다. 제주도의 위치는 또한 변화의 물결에 한 몫 하고 있다. 대서양 중심권에서 동아시아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한반도, 일본을 둘러싼 지역과 동중국해 지역에 인구와 부가 급속히 집중되고 있다. 동경, 서울, 인천, 베이징, 상하이, 타이베이 등 제주에서 두 시간 거리 안에 세계 유명 도시들이 몰려 있다. 경제적으로나 정보통신이 집중된 곳에서 제주에 견줄 만한 곳이 거의 없다. 중국 사람들은 처음엔 여행으로 오지만 나중엔 문화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하러 올 것이다.

애초에 HRA를 개설한 것도 고향 제주에 좋은 기업과 좋은 일자리, 좋은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여러번 개개인 입장으로는 월급 많이 주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겠지만 사회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 제주도 60만 인구를 소비자로 보고 비즈니스 하는 회사는 그저 그런 회사다. 60만 인구를 상대로 하는 장사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회사는 제주도에 기반을 두고 전국,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회사가 제주로 이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제주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몇 개의 회사가 제주도로이전



“20대야말로 꿈이 있는 사람들

꿈을 영어어가도록 하고,

꿈이 없는 사람은 찾아가는

시기다.”

했다. 이 회사들은 제주도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회사가 아니다. 비즈니스, 연구를 하겠다고 온 회사다. 현재는 육지에서 우수인력을 데려오지만 앞으로 점차 현지화된다면 여러분을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에 맞춰 실력을 쌓고 창조적인 인재로 거듭나야 한다.

지역적 타성을 버리고, 서울로 뛰어들 수 있어야 한다. 서울에 예측된 생각을 하다 보면 한계를 넘을 수 없다. 여건은 좋으니 그만큼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좋은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제주대학생이 주역이 돼야 한다. 그냥 있으면 곤란해지는 상황이 왔다. 제주도는 옛날처럼 우리 것만 지키고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선배들이 국제자유도시를 만든 만큼 그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 하루살이 관광 문화에 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이 나올 수 없다.

경쟁력을 높여라

엄용훈 삼거리픽처스 대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상고를 졸업한 후 대기업 재무팀에 취직해 10년을 일했다. 대기업 생활은 인생에서 기분을 배우는 시기였다. 모든 것이 정확한 숫자로 떨어져야 했다. 분명한 원인과 결과를 판단하고 사고하는 그런 것들이 몸에 배었다. 아무진 일손짜로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10년마다 새롭게 인생을 디자인하겠다는 결심으로 회사를 그만뒀다. 바야흐로 벤처 열풍이 불던 때, 투자 컨설팅업에 발을 디뎠다. 투자결정과 인수합병 등 컨설팅 업무를 맡았다. 원칙대로 일을 해야 했던 대기업과 달리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었다.

나의 세 번째 인생은 예기치 않게 ‘영화’로 기울었다. 투자컨설팅 고객이었던 영화사와 인연이 돼 2000년대 중반 엔터테인먼트사 제작총괄본부장으로 일하게 됐다. 그러던 중 2008년 제작사 삼거리 픽처스를 차려 독립했다. 삼거리는 ‘늘거리’ ‘불거리’ ‘재미거리’ 등 세가지로 담고 있다. 영화는 간절함과 절박한, 순발력과 판단력이 종합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해낼 수 없다. 나의 사고 자체를 전환해야 하는 일기기에 가장 힘든 10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영화계에 입문하고자 19편의 영화에 참여했지만 우리 회사를 알린 작품은 <도가니>와 <러브 픽션>이다.

개봉은 <도가니>보다 늦었지만 <러브 픽션>이 삼거리 픽처스의 창립작이나 다름없다. 영화 <러브 픽션>은 연애가 천편일률적으로 다뤄지는 것을 보며 보다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보자며 전계수 감독과 의기투합해 만든 작품이다. 당시 많은 영화 투자자들이 시나리오를 보고서 투자를 꺼렸다. 투자가

난항을 겪으면서 4년 반이나 영화 제작을 미뤘었다. 다행히 뜻이 맞는 투자사를 만나며 180만 명의 관객을 불러들였지만 그동안 재정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두 번이나 제작이 무산되자 살던 아파트를 내놓고 아내와 3남매를 데리고 월세 단칸방으로 옮겨야 했다. 경제적으로도 삼척이나 모든 상황이 최악에 치달았지만 내 <도가니>를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집회에 거의 매일 나가던 ‘촛불 시민’이었다. 집회가 끝나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그 무엇도 이 사회를 바꿀 수 없을 것 같다. 그래도 너에겐 영화가 있으니 화합이 있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다. 40대에 들어서며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던 때였다.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우연히 공지영 작가의 <도가니>를 읽었다. 당장 손에 쥔 돈 없이 <도가니> 판권을 살 수 있었던 건 돈 오로지 ‘집념’ 덕분이었다. 타 업체에서 1~2장짜리 기획서를 보냈을 때 구구절절 편지가 가까운 28장짜리 기획서를 보냈다. 공지영 작가가 만나자고 했다. 8장 계약서를 가지고 나갔다. 보통 판권을 살 때는 원작자에게 일시불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전체 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드리고 두 달 반 후에 80%를 치르겠다고 제안하자 공작가는 흔쾌히 승낙했다. 밀천보다 진심이 엿보였기 때문이었다.

어렵사리 판권을 샀지만 영화를 만드는 과정도 좀처럼 쉽지 않았다. 흑역 영화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 몰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촬영에 들어갔다. 흥행을 떠나 이 영화만큼은 반드시 세상 밖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제작진 모두가 일심동체가 됐다. 그렇게 해서라도 진심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었다. 마케팅 비용이 없어 ‘임소문’에 기대야 했지만 반응은 그 것 이상이였다. 어느 순간 9시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



“인생 경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솔데없다여기지 말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더니 결국은 영화가 종영하기 전날 도가니법이 개정됐다.

이처럼 두 편의 영화가 흥행을 거둘 수 있었던 건 나의 ‘포기하지 않는 습관’ 때문이었다. 자신의 모든 인생 경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솔데없다여기지 말고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소위 말하는 고졸이지만 어떤 장벽에도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극한의 상황에 놓이면 이 위기를 타고 넘으려 애썼다. 대기업과 벤처기업에서 보냈던 20년이 무의미한 시기가 아니다. 대기업에서의 10년은 원칙과 기준을, 두 번째 10년에서 창조적인 활동과 근성을 배웠던 것이 세 번째 10년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된다. 포기하는 사람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마음으로부터 그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들였다면 좋겠다.

교수신문

호혜적이고 중독성 있는 해외봉사



권상철
사회교육과

“
라오스주민들이 전해준 순수한
미소, 따스함, 감사하다는 표현은
오래동안 잊고 있던 따스함과
편안함의 의미를 되살려 주었다
”

제주대학교 해외봉사활동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의 하나로 분류되는 라오스에서 8박 9일 동안 이루어졌다. 봉사단은 수도인 비엔티엔에서 북쪽으로 약 60킬로미터 떨어진 툴라쿰 구역 학사이 마을 초등학교에 본부를 설치하고 50여명이 4개 분야에서 활동을 개시하였다.

의료 봉사는 운동장과 교실에 진료소를 꾸리고 주민들이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빈곤 국가의 현실인 의료 서비스 부족이 그대로 나타나는 농촌 마을이었기에 학사이와 이웃 마을까지 포괄하여 상당수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번 제주대 봉사활동이 규모를 늘리며 추가한 분야 중, 교육 봉사는 방학 중인 초등학교생을 저, 고학년으로 구분해 2개의 교실에서 만들기과 율동의 흥미와 친화감을 중시하는 활동을 했다. 한국어, 태권도 등 교육할 내용은 많지만, 국가, 지역 사회의 교육과정이나 전통, 문화에 크게 이질감이 없는 내용 위주로 구성했다. 노력 봉사는 인근 시른무양초등학교의 교실 내·외부 도색, 낡은 주먹을 수리하였고, 새마을 운동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도로 시멘트 포장에 참여했다.

33도를 넘는 더운 날씨에 땀 흘리는 노력을 투입한 분야였는데, 땀에 더하여 무언가

더 지혜로운 도움을 고민해 볼 필요가 느껴졌다.

후진국가에서 땀 흘리는 노력 봉사팀은 준것도 많지만 받은 것이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술 봉사는 인근 농가를 방문해 가족의 진단과 구충제, 항생제 투여와 배분, 그리고 강에서 이루어지는 어류 양식과 우기강 범람시 물고기 포획 시설에 대한 조사와 답사 그리고 제언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주민 의료 서비스도 부족한 상황에서 가족들은 거의 방치되어 있어 기본적인 구충제 보급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고 어류 양식 또한 외형적인 기술보다 실질적인 운용 기술 전수가 필요하다는 봉사팀의 판단이다.

라오스는 우리나라 해외원조가 집중되는 국가 중 하나이자 새마을 운동 수혜 지역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원조는 빈곤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스스로 자신들의 마을, 지역을 향상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곳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도움을 주는 사람/단체에게도 지원 동기를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학사이 마을은 깔끔한 담장, 포장되고 정리된 도로로 좋은 인상을 주었다. 해외의 지원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생활 환경, 도로 포

장, 학교 시설 개선 등의 효과를 경험한 학사이 마을은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친화성으로 큰 어려움 없이 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나라가 원조국가로 성장하며 해외봉사는 이제 여러 지역에서 다각적으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대학교 해외봉사활동은 미개발국가의 실제 생활상을 보고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동시에 도움을 준 것보다 많은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할 끼리를 가지고 돌아온 모습이다.

이번 해외봉사를 하면서 라오스 주민들이 전해준 구김없는 순수한 미소, 거친 손과의 악수에서 느껴지는 따스함, 표현이 되지 않아 얼굴을 우그리며 전하려는 감사하다는 표현들은 참가자들에게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따스함과 편안함의 의미를 되살려 준 듯하다. 인젠가 들었던 ‘봉사는 도움을 주는 것보다, 도움을 받는 것이다’라는 말이 되살아난다.

봉사는 현지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가능했던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에 호혜적이다. 한 번의 경험이 또 가고픈 생각으로 이어지고, 쏟아지는 봉사 체험의 글, 책들을 보면 ‘해외봉사는 중독성’이 강하다.

동문칼럼

연도별 인생계획표를 만들고 계획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라



양재혁
수의학과 89학번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 임용 예정

필자의 경우는 세계적 명언이나 교훈이 되는 구호 등을 좋아했다. 예를 들면, 영화 영웅본색의 영어제목인 A better tomorrow를 연상시키는 ‘노력하라. 그리고 더 좋은 날을 위해 극기하라’ 등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은 아버님이 늘 말씀하셨던 ‘이루후제’이다. 이 말은 ‘이 다음에’라는 제주어인데 오늘을 살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라는 교훈이 있다.

1989년 수의학과가 부활하며 첫 신입생이 된 필자는 전혀 새로운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지 막막해 하며 귀중한 시간들을 소모하였다. 처음 맞이한 방학에 우연한 기회에 배낭하나 짊어지고 보름간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의 대학을 돌아 다녔다. 그리고는 꼭 도서관을 찾아갔다.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가득가득 학생들이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충격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외국어도 두 개나 공부한다고 했다. 뭔가에 얻어맞은 기분이었고 이렇게 놀라만 다니는 내가 부끄러웠다. 얼마 남지 않은 방학에 ‘Vocabulary 5500’을 한 권 사서 다 외었다.

2학년 때는 학생회 총무로, 동아리 학술부장으로 가장 분주하게 보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될 것 같았다. 지금은 바쁘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열의와 걱정이 있었는데 이루어져라는 말을 머리 속에서 반주하였다. 3학년 때는 매일 첫차를 타서 등교했고, 2학기 새벽부터는 제주시청 인근 외국어학원을 다니며 6개월간 단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았다. 4학년 때는 수의사국가고시 전국수석을 준비하며 등하교의 시간을 줄이고자 학교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졸업 때는 172학점을 이수했는데 개교 이래 가장 많은 학점을 취득한 사람이 아닌가한다. 군에서 인생계획표를 만들었다. 25살 때는 뛰하고 26살 때는 ...은퇴하면 뛰하고.... 계획표에 꼭 차선책 즉, 플랜B를 적어두었다.

전역하는 25세 때 첫 직장인 다국적기업에 들어갔다. 놀기 딱 좋은 곳. 강남대치동에 있는 본사는 5시 퇴근에 주5일 근무라는 환상적인 곳이었는데 제주에 내려오니 자동차와 아파트가 주어졌다. 또다시 영어학원에 등록하였고, 퇴근 후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했는데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동장들도 많이 보였다. 도서관이 문닫을 시간이 되면 투덜투덜 걸어나와 앞을 보면 제주시의 야경이 눈에 들어온다. 사회학파에 다니던 친구 전희는 그 모습을 ‘만질 수 없는 보석’이라 했다.

27세에 공기업 한국마사회에 입사하였다. 제주목장과 부산경마장 등에 근무하면서 오래된 꿈을 이루기 위해 업무와 연구를 병행하며 논문들을 써나갔는데 현재 말의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보유하고 있고 금번 교수채용심사에 제출한 연구실적이 900%가 넘어 지원자 중 최고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인생계획표 보다 다소 늦었지만 꿈을 이루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upgrade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야생의 동물도, 냉정한 기업의 세계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지구 위에서 일어난 과거의 교훈을 살펴보자. 온 지구를 누비고 다니던 공룡도 결국은 백악기 말기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멸종하였으나 말의 조상은 작은 개 정도의 크기였을 뿐이었었는데 도태와 진화하는 과정을 겪었기에 오늘날까지 육종하고 멋진 동물로 살아남지 않았던가?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하루 24시간을 치밀하게 활용하고 헛되지 보내지 말라. 꿈을 이루기 위해 과감하게 도전하라. 앞으로 다가 올 환경에 맞추어 자기 자신을 가꾸며 진화하기를 노력하라. 혹자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인생엔 우리가 부여한 만큼의 의미만 존재할 뿐이다’라고, 그때들의 인생의 의미는 어디까지이며 얼마나 큰가?

독자기고



강민성
인천홍보학과 2

나는 블랙다이어몬트라네 공연분과에 속해 있는 동아리에서 2011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우리 동아리는 작사, 작곡 등의 음악 작업도 하고 공연도 한다. 동아리 활동을 2년간 해오면서 많이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 동아리간, 심지어는 같은 동아리 내에서도 유대감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자주 만나지도 않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만나고 유대감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아리

연합회에서 나서고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작년 동아리연합회는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었다. 먼저 동아리에 대한 지원금이 부족했다. 작년에는 학생복지과에서 지원한 25만원이 동아리의 1년 예산이었다. 동아리를 이끌어 나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래서 공연을 진행하거나 공연 연습을 할 때는 사비를 쓰거나 스폰서를 받아서 동아리 활동을 했다. 또 기자재들도 개인이 직접 공수해 오는 경우도 허다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동아리 홍보 기간도 짧았다. 3월 동안 동아리 홍보를 위해 학생회관에 홍보데스크를 설치한다. 이 때 동아리원을 모집하는데 대중포일을 3월에 하면서 홍보에 전념하기가 어려웠다. 이와 함께 홍보를 위해서 쓰는 현수막이나 포스터들도 사비를 써야 돼서 홍보마저도 쉽지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동아리연합회는 미리 짜놓은 일정을 맞추는 데만 급급한 느낌도 보였다.

이런 측면 때문에 신입생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동아리에서 공연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었다. 동아리 활동이 유대감을 쌓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개인의 실력을 갈고 닦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나로써는 유대 부분이 되지 않는 것이 매우나 아쉬움이 남았다.

올해 동아리연합회는 지난해보다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느낌이었다. 학생복지과에서 지원한 것 외에 동아리연합회 차원에서 15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 15만원이 동아리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많은 보탬이 될 것 같다.

또 분과 단위의 힘을 키워주는 것 같다. 분과는 각각 동아리 성격에 맞게 묶어서 만든 조직이라고 보면 된다. 이 분과에 작년에는 44개의 동아리에서 각각 만원씩 건여서 44만 원에 6개의 분과 60%를 주고 40%를 동아리연합회가 가졌다. 올해는 43개의 동아리에서

5만원씩 차출해 6개의 분과에 100%를 나눠준다. 작년에는 동아리연합회가 40%를 가져갔는데 올해는 분과에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분과마다 동일한 비율로 지급했는데 올해는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의 수에 맞게 차등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주고 있다. 현수막을 통해서 동아리 홍보도 훨씬 용이해 질 것 같다. 학생회관 게시판에 덕지덕지 붙여놓으면 효과가 더 뛰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현재 동아리연합회가 잘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동아리연합회가 동아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앞으로도 동아리에게 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동아리연합회가 되길 바란다. 또 이를 통해 동아리들이 예전처럼 활성화해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 되는 것을 원한다.

독자기고

인하된 등록금, 대학원서 보충?



좌승훈
인천홍보학과 박사과정

2013학년도 대학원 등록금이 3% 인상됐다. 반면, 학부 등록금의 경우 평균 0.39% 인하 조정됐다. 대학원 등록금은 학부와 다르게 매년 같은 비율로 인상되거나 동결됐다. 등록금이 대학원생 의사반영에 소극적인 절차만을 거치면서 이렇게 결정됐다.

2012학년도에도 그랬다. 학부생은 전년 대비 등록금이 5.7% 인하된 것과 달리, 교육대학과 대학원은 2011년 수준에서 동결됐다. 교육대학은 등록금이 워낙 적은 편이지만 대학원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보니 올해에는 등록금이 인하하는 것에 은근히 기대를 가졌는데, 해택은 커녕 되려 인상이라니 허탈하다. 이렇듯 학부생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도 무척 속쓰린 일이다.

왜 그럴까? 등록금을 내리면 정부가 장학금을 추가로 배정하고, 대학 평가 지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많은 대학이 등록금 인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학부만이다. 즉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등록금을 내려도 인센티브가 없기에 학교 측에서는 내릴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대학 당국은 대학원이 학부에 비해 학생 수가 적으니까, 대학원생의 등

록금 액수가 학부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협상력과 결집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11명 중 학부 재학생은 3명이 참여하지만 대학원생은 1명이다 보니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어렵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2년 연속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가? 참고로, 등심위는 학생처장, 전임교원 2명, 직원 2인, 학부생 3인, 대학원생 1명,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회계전문가 1인, 학부모 1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생도 엄연히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인데, 등록금 인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2012년 제주대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에 따르면, 등록 학생 수는 학부생이 9774명, 대학원생이 1803명으로 돼 있다. 등록 학생 10명중 1.6명이 대학원생이다. 이중 직장을 다니지 않는 전임 학생도 상당수다. 학부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긴 어디 등록금뿐인가. 일례를 더 들어보자. 골프아카데미의 경우 대학원생 이용료(6개월 기준)는 33만원이다. 학부생이 25만원인 것과 달리, 대학원생은 학부보다 동등, 일반단체의 이용료와 똑같다. 이 또한 눈에 거슬리기는 마찬가지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 등록금이든, 복지시설 이용혜택이든 대학원생에게 차별적이고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대학당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해명을 듣고 싶다.

제주대신문 축쇄판 발간, 60년 대학 역사가 DVD 두 장에

1954년 창간호부터 2013년 884호까지 5610면 수록
발행 당시 신문 그대로 디지털화한 이미지DB 완성
모든 대학 역사 정보를 원본 형태로 제공

엔론미디어센터(주관 김동운)가 발행하는 제주대신문이 DVD 축쇄판으로 나왔다.

이번에 나온 DVD 축쇄판은 1954년 5월 27일 창간호부터 2013년 1월 1일 884호까지와 그 사이에 발행된 8회의 호외 입시특집호를 묶은 것이다. 5610면에 이르는 58년치의 신문을 DVD를 2장에 수록해 60년 대학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축쇄판 볼륨 1판에는 1954년 창간호부터 1996년 5월 발행된 553호(2816면)까지를, 축쇄판 볼륨 2판에는 1996년 6월 발행된 554호부터 2013년 1월 발행된 884호(2794면)를 수록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54년 창간 이후 모든 신문을 발행 당시 그대로 디지털화한 이미지DB를 1년여의 작업 끝에 완성했다. 지난날 비로소 58년이 되는 방대한 제주대신문 모든 기사의 DB화를 완료, 기사는 물론 사진·도표·만화 등 모든 내용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제주대신문의 디지털화 작업에 따라 이번엔 완료한 이미지 DB를 DVD 축쇄판 형태로 1000개를 제작했다.

이 DVD 축쇄판은 58년의 제주대신문 모든 지면을 지름 약 11.5cm의 콤팩트스크 2장에 기록해 기존 책자 형태의 신문 축쇄판에 비해 제작비용은 물론 보관공간과 무게를 크게 줄였다. 또한 컴퓨터로 검색하면 사진을 포함한 신문지면이 모니터에 즉시 나타나 줌인, 줌아웃 기능을 통해 기사 크기를 간단하게 조절하도록 해 선택된 화면에서 프린트하면 원하는 기사를 인쇄물로 출력, 기사스크랩 하기에도 유용하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문 연도별, 일자별 기사 및 색인을 제시하여 검색이 자유롭다. 이밖에도 최신의 초

모든 신문 연도별·일자별 기사 및 색인이 검색 가능...

줌인·줌아웃 기능 통해 원하는 부분 확대·축소하여 인쇄 ‘자유자재’

고속 이미지 처리기술을 적용해 탁월한 검색속도를 보이며, 간단한 마우스 조작만으로 하루치 신문을 한 스크린에서 상·하·좌·우로 쉽게 스크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든 대학의 역사 기록 정보를 원본 형태로 생생하게 제공하고 있어 대학 구성원은 물론 동문들도 쉽게 제주대 신문을 접할 수 있다.

허창진 총장은 발간사에서 “우리 대학이 걸어온 탐과 눈물과 환호의 역사는 물



제주대신문 DVD 축쇄판 결면(위)과 속면(아래)

론이요, 제주사회와 한국사회의 제반 문제들이 제주대신문에 오롯이 담겨 있다”면서 “그동안 간행된 제주대신문을 총망라하는 DVD 축쇄판을 선보이게 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음과 아울러 영원한 기록물로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1954년 5월 27일 창간한 제주대신문은 월간·격주간·순간 발행을 유지해오다가 지난 1990년 3월부터 신속한 뉴스 전달을 위해 8면·4면으로 주간 발행했다. 1994년 9월부터는 8면 체제로 증면되어 기성인론과 다른 시각으로 지역사회 문제

에 접근하여 기사화하고, 언론사로서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해 왔다.

지난 2007년 3월부터는 취업난과 맞물려 학생기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주간 발행 체제에서 격주간 발행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대학 언론의 역할과 사명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2012년 8월 29일 873호 신문부터 5년만에 8·4면 주간 체제로 발행하고 있다. 제주대신문은 매회 8500부씩 발행되어 재학생과 교직원, 각 학교, 발전기금 출원자, 동문, 공공기관 등에 무료 배포되고 있다. 정용복 엔론미디어팀장



■ 졸업생 인터뷰

길고도 짧았던 대학생 잊지 못할 우리의 상아탑

대학생이라는 이름 하에 좌충우돌과 시행착오를 보오받던 울타리에서 벗어나, 드디어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 긴 시간을 거쳐 드디어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 거듭나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졸업생들. 이들과부터 상아탑을 벗어나는 사회와 그간의 잊지 못할 추억들,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았다.



해외인턴 값진 경험으로 남아

양지철(컴퓨터공학 4)씨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고 많은 것을 배우며 즐겁고 의미 있게 대학생활을 보냈다. 그가 보낸 시간은 그 전에는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우고 자신의 꿈을 가질 수 있었던 알찬 시간이었다.

“특별히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면, 작년 6월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최한 IT협력단에 참가해 캄보디아로 파견 갔다 온 경험이에요. IT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아 영어가 유창하지 않음에도 열심히 준비해서 면접에 합격한 뒤, 팀을 짜서 캄보디아 정부기관인 NIDA에서 원하는 업무를 요청받아 수행했지요.”

그들이 부여받은 업무는 홈페이지 웹디자인이다. 파견 전에 3박4일 동안 소양교육을 받았고 캄보디아에 도착해 미팅을 마치고 본격적인 일을 시작했다. 인턴도 처음인데 거기다 해외에서 일을 하니 느낌이 새로웠다고 한다.



양지철(컴퓨터공학 4)씨.

만든 친구들과의 추억이다. “친한 친구 2명과 함께 축제 동안 낮에는 팔링수를 팔고 저녁에는 야광 팔찌를 팔았어요. 마지막 날에는 ‘나도 아라스타’라는 장기자랑 코너에 참여했죠. ‘공 to the 대’라는 그룹을 만들어 DJ DOC 노래를 불렀는데 2등까지 하는 영광을 얻었어요.”

당시 친구 한 명의 자취방에서 셋이 함께 동영상을 보며 무대를 준비하고, 하루 세끼를 같이 먹으며 장난치고 웃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한다.

“저에게 제주대학교란 ‘발견’이에요. 학교를 다니며 여러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을 만나며 나를 점점 알아가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죠. 타인의 장점을 본받으려는 자세도 갖게 됐어요.” 그는 후배들에게 대하는 곳이지만,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니라 조인한다.

“대학은 ‘공책과 펜’이라고 말해 주고 싶어요. 공책에는 지식뿐 아니라 여러 경험도 적을 수 있잖아요. 공부 외에 다른 여러 활동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인간관계에만 치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또 최대한 많이 배우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이가 어려도 생각이 굳고 배우지 않으면 노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요즘 대학생들은 꿈이 없는 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경험을 해보며 자신이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또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배우길 권해요. 힘들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웃길 바라고, 파이팅을 외쳐주고 싶어요.”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찾아야

고덕훈(생명공학부 4)씨는 학업에도 충실하면서 학과회장,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숨가쁜 대학 생활을 보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 전공을 살려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다.

“저는 그 전에 반장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와서 학과회장을 맡게 돼 어려운 점이 많았죠. 학생들을 관리·통솔할 때 회생할 것도 많았고, 참여율 문제나 서류 관리 등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돌이켜 보면 보람차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느껴요. 임기를 마친 뒤 사람들이 잘했었다며 칭찬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그래도 고생한 보람은 있구나 싶어 뿌듯하죠.” 그에게 가장 즐거웠던 경험은 1학년 때 했던 멘토링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이다. 학원 다닐 형편이 못 되는 중학생 남자아이에게 학교 공부를 가르쳐주고 같이 관광지를 구경하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다.

“멘토링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도 많아요. 담당 선생님과 친구들, 특히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놀았던 것이 좋았어요.” 덕훈씨에게 대학교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여러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죽 일만 해야 하지만, 대학교를 다니면서는 남는 시간이 많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 같은 경우 1학년 때는 봉사활동과 동아리, 3학년 때는 학과회장, 4학년 때는 LINC사업단의 학생참여 프로그램 캡스톤디자인에 참여해 일본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해봤어요. 이런 다 대학생이기엔 할 수 있었던 것들, 대학생이 아니면 누리지 못했을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졸업을 하게 되니 더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

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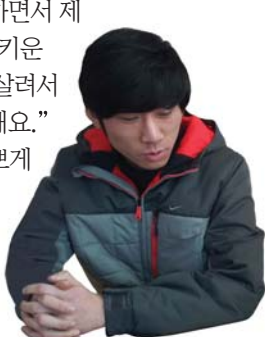
“대학생이라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걸 너무 늦게서야 찾은 게 안타까워요. 방학 때마다 인턴도 해볼걸, 알바 같은 것도 더 많이 해볼걸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럼에도 그런 아쉬움은 뒤로 하고 그는 이제 다른 시작, 곧 대학원을 준비하는 앞으로의 계획에 더 열중하고 있다.

“3학년 때부터 실험실에서 연구들을 해보면서 적성에 맞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취업 능력은 안 된다고 생각해,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제 역량을 좀 더 키운 뒤에 전공을 살려서 취직하고 해요.”

매일을 바쁘게 보낸 그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루하루를 바쁘고 치열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귀찮더라도 더 귀찮게, 더 많은 것을 하면서 대학생활을 했으면 해요. 동아리 활동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적성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취직 전에 대학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그는 여행은 꼭 다녀와야 된다고 강조한다. 취직하면 못할 것이니 학생일 때 꼭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저는 제주도가 너무 시야가 넓혀있다고 생각해요. 요새 다들 천편일률적으로 공무원 시험 같은 것만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굳이 대학을 다니는 의미가 없잖아요. 배낭여행이나 기차여행을 통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다양한 것을 보고 오면서 열린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덕훈(생명공학부 4, 좌)씨.



고은성(수산생명의학전공 4, 우)씨.

한글지도 봉사 통해 많은 것 배워

고은성(수산생명의학전공 4)씨 대학 졸업 뒤에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한다. 그는 즐겁게 보낸 대학생활 뒤에 남들이 인지 못한 많은 것을 얻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특히 재미있었던 기억은 중간고사 기간 때 친구들과 공부한답시고 동아리 방에 새벽까지 머물며 놀았을 때예요. 새벽 2시까지 공부하다가 새벽에 농구하며 친구들과 놀았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또 3학년 때의 벚꽃축제 역시 저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죠. 3학년 때 여자친구가 생겼거든요. 1,2학년 때 느끼지 못한 기쁨을 맛봤네요.” 은성씨가 기억하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추억은 동려회를 통해 수행한 봉사활동이었다. 그는 초등교육을 못 받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지도 교육을 시행했다.

“저에게 잘 맞는 일이라서 1학년 때도 하고 전역해서도 한 학년을 더 했어요.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수업을 진행하며 재미도 느꼈죠. 이 활동을 통해 나중에 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건 어떨까 하고 진로를 희망할 수 있었어요.” 그는 전공에 큰 흥미를 못 느꼈었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 점점 흥미가 늘었다는 것이다. “저는 문과 출신인데 이과에 들어온 거라 1학년 때는 전과하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고 하니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힘

들었지만 그만큼 재미도 커졌어요.” 그의 이런 노력은 빛을 발해서 1학년을 제외하곤 꾸준히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저에게 대학교란 재미있는 곳이에요. 학업뿐만 아니라 즐거운 예외소도 많았어요. 특히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마음 맞는 친구와 함께 의논하고 밥 먹으면서 담소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그런 그이기에 졸업은 각별한 아쉬움과 슬픔을 준다. 대학을 통해 만난 수많은 인연을 대학을 졸업하면 지금처럼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걱정하는 또다른 문제는 다른 동기들이 취업이나 스펙 준비에 열성일 때 그는 학위를 따기 위해 대학원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건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취업이 목표인데 저는 그들과 달리 또 다시 공부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 우선은 지금 할 공부에만 집중하려고 해요.”

그는 요즘 후배들이 대학을 단순히 자유로운 공간으로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제 경우 대학을 통해 적성을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후배들 역시 대학을 그저 자유로운 공간이 아닌, 계속 찾다다니다 많은 기회를 얻고 적성을 찾는 장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좋은 게 정말 많아요.”

또 교수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어 두라고 덧붙였다.

“학점 잘 받으려고 친구와도 놀지 않고 공부만 하는 친구들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학교활동이나 동아리 등에 많이 참여해서 좋은 인연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연애도 꼭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꾸준히, 끝까지 밀어붙일 것을 당부합니다.” 김소영 기자

“와라와라”

외롭와랑은 '소리가 크게 울리는 모양'이란 뜻의 제주어입니다. 글·그림 / 김소영

6년간의 초등학교 생활

3년간의 중학교 생활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

그리고, 4년간(±α)의 대학교 생활

학교를 나서는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퇴계시와 미학

退溪詩

이 손오규 저 | 441페이지 | 20,000원 |

“돌을 지고 모래를 파서 스스로 집을 삼고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니 다리가 많구나 한 평생 한 움큼 산 생물 속에 머물러 강호의 물이 얼마인지는 묻지도 않는도다”

퇴계는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시인이다.

『퇴계시와 미학』은 퇴계시를 번역하고 높은 예술성에 대해 기술한 책이다. 저자는 퇴계가 가지고 있는 번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재현하려고 노력했다. 학문적 함축성과 철학을 통해 완성된 인간존재, 근원으로서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 대자연의 질서와 조화에 동참하는 감동 등 다양한 퇴계시의 미학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 탐구

정광중 · 김민호 · 오성배 · 황석규 · 고광명 | 320페이지 | 13,000원 |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세계 사람들이 말춤 열풍에 빠져 들고 있다. 싸이 돌풍을 우리 모두가 예견할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기로에서 있음을 예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다문화사회의 이행속도가 시시각각 빨라지고 이미 가속도가 붙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 탐구』는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성장·발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교육의 실상을 다룬 연구서이다. 다문화교육 전문가와 제주 지역 연구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내용을 담았다.

법철학의

이 고훈진 저 | 291페이지 | 15,000원 |

“살을 떠난 진리는 없다.”

저자는 법철학을 공부하면서 ‘학문의 즐거움’을 향유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법철학의 추상성’에 상심하곤 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나라 헌법재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헌법재판 특히 위헌법률심판은 법규범이 헌법에 비추어 정당화되는지 여부를 살피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규범의 정당화’라는 법철학의 주요문제와 맞닿아 있었던 것이다.

『법철학의』 정법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올바른 법에 대해 탐구하고 모색하는 법철학 강의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한 교재다. 도덕규범과는 달리 강제규범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올바른 법에 대한 근거제시가 아주 중요한 법규범에 대해 배워나간다.

실용영문법해설(3)

『실용영문법해설』 시리즈 전3권

이 고키희 저 | 458페이지 | 20,000원 |

“The sun sets regularly on the Union Jack these days, but never on the English language.”

“요즘은 영국 땅에서 어김없이 해가 지지만, 영어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해가 지는 일이 결코 없다.”

『실용영문법해설』 제3권. 영문법 범주가 갖는 형태, 의미, 기능 등을 상세하게 다루는 실용영문법해설서이다. 영어를 능동적으로 구사하면서 타인의 말이나 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충분한 예문을 동원하여 다양한 영문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전략과 정보의 경제학

이 김진옥 저 | 294페이지 | 20,000원 |

“경제학은 사회가 가치가 있는 재화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희소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생산된 재화들을 상이한 사람들 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 폴 사뮤엘슨(Paul Samuelson)

『전략과 정보의 경제학』은 게임이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보경제학을 안내한 책이다. 게임이론이란 전략적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주체들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기본적인 게임이론에 이어서 관련 정보경제학이론이 소개된다.

해상 수색 및 구조론

이 최찬문 · 안장영 공저 | 314페이지 | 13,000원 |

선박에서는 예기치 못한 원인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나 해양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지리적 격리성, 해상환경의 특수성 및 작업의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조난자를 수색하고 구조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해상 수색 및 구조론』은 체계적인 해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업무를 안내한 책이다. 해양경찰을 위한 수험생 및 현장 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IMO 수색 및 구조’를 다루고 있으며 상선 수색 및 구조,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수난구조법을 정리하여 수록했다. 또한 관련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 및 약어 설명이 들어있다.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전화 064)754-2275 팩스 064)702-0549 http://press.jejunu.ac.kr

제주대학교 출판부